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정책 지원방안 연구

보안등급 | 일반과제

기본연구

2016-16

이남철
정지선
윤혜준

머 리 말

최근 해외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짧은 역사를 바탕으로 경제 개발과 사회 발전을 이룬 한국의 성공 사례에 대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의 선진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제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본연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남철 박사를 책임자로 하여 정지선 박사, 윤혜준 박사가 참여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준 원충희 위촉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더불어 이 과제 수행 중 직업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면담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국내외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참여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혀 둔다.

2016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용 순

제 목 차 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추진 방법	5
제4절 연구의 대상	7

제2장 문헌 분석_9

제1절 국내외 ODA 환경 분석	11
제2절 선행 연구 분석	21
제3절 한국의 ODA 현황 분석	24
제4절 한국의 주요 아시아 개발도상국 ODA 지원 현황	45

제3장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실태조사 분석_77

제1절 실태조사 개요	79
제2절 실태조사 결과 분석	8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103

제4장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면담조사 분석_105

제1절 면담조사 개요	107
-------------------	-----

제2절 면담조사 결과 분석	10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11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_119

제1절 결론	121
제2절 정책 제언	125

ABSTRACT_137

참고문헌_143

부 록_147

1. 실태조사지	149
2. 심층 면담지(국문)	155
3. 심층 면담지(영문)	158

표 차례

<표 2-1> 국내 환경 분석	12
<표 2-2> 1차 및 2차 ODA 중점 협력국 비교	13
<표 2-3> 상호 이익 추구 활동 예시	17
<표 2-4> 세계은행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 규모	25
<표 2-5> 세계은행 아시아 지역 직업교육훈련 추진 사업(2012~2016, 승인 기준)	26
<표 2-6> 아시아개발은행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 규모	27
<표 2-7>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11~2017)	37
<표 2-8> 국가별 4대 중점 협력 분야 도출(안)	38
<표 2-9> 기술 인력 양성 TVET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실적	39
<표 2-10> TVET 분야 ODA 추진 실적	41
<표 2-11> 2017년도 개발협력 구상 사업 예산 및 세부 현황(1) ..	42
<표 2-12> 2017년도 개발협력 구상 사업 예산 및 세부 현황(2) ..	44
<표 2-13> 유·무상 원조 지원 실적(라오스, 1987~2013)	46
<표 2-14> KOICA의 무상원조(라오스, 1991~2014)	47
<표 2-15> KOICA의 라오스 사업 분야별 지원 현황(1) (1991~2014) ·	48
<표 2-16> KOICA의 라오스 사업 형태별 지원 현황(2) (1991~2014) ·	49
<표 2-17> KOICA의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실적(1991~2014)	49
<표 2-18> 유·무상 지원 실적(미얀마, 1987~2013)	52
<표 2-19> 무상원조 지원 실적(미얀마, 1991~2014)	53
<표 2-20> ODA 지원 실적(방글라데시, 1987~2013)	56
<표 2-21> 유상원조 지원 실적(방글라데시, 1991~2014)	57

<표 2-22> 무상원조 지원 실적(방글라데시, 1991~2014)	57
<표 2-23>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지원 추이(2010~2014)	58
<표 2-24>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분야별 지원 현황(2010~2014) ·	58
<표 2-25> 유·무상 원조 지원 실적(베트남, 1987~2013)	62
<표 2-26> 유상원조 지원 실적(베트남, 1991~2013)	63
<표 2-27> 무상원조 지원 실적(베트남, 1991~2014)	63
<표 2-28> 베트남의 ODA 수원 추이(2004~2013)	64
<표 2-29> 교육 세부 영역별 베트남 원조 현황(2011~2013)	65
<표 2-30> ODA 지원 실적(스리랑카, 1987~2013)	67
<표 2-31> 유상원조 지원 실적(스리랑카, 1991~2014)	68
<표 2-32> 무상원조 지원 실적(1991~2014)	68
<표 2-33> ODA 지원 실적(인도네시아, 1987~2013)	70
<표 2-34> 유상원조 지원 실적(인도네시아, 1991~2014)	71
<표 2-35> KOICA의 무상원조 지원 실적(인도네시아, 1991~2014) ·	71
<표 2-36>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2014) ·	72
<표 2-37> ODA 지원 실적(캄보디아, 1987~2013)	74
<표 2-38> 유상원조 지원 실적(캄보디아, 1991~2014)	74
<표 2-39> 무상원조 지원 실적(캄보디아, 1991~2014)	75
<표 3-1> 주요 조사 내용	80
<표 3-2> 응답자 및 표본 국적	82
<표 3-3> 한국 ODA 사업 참여 경험	83
<표 3-4> 참여 ODA 사업 명칭	83
<표 3-5> 한국 ODA 사업 인지도	85

<표 3-6> 응답자 국적별 한국 ODA 사업 인지도	85
<표 3-7> 한국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 만족도	86
<표 3-8> 응답자 국적별 한국 ODA 사업 만족도	87
<표 3-9> 한국 ODA 사업 목표 달성 분야	88
<표 3-10> ODA 필요 분야	89
<표 3-11> 응답자 국적별 ODA 필요 분야	90
<표 3-12> 한국 ODA 사업의 문제점	92
<표 3-13> 한국 ODA 사업의 문제점(1+2+3순위 종합)	93
<표 3-14> 참여 경험에 따른 한국 ODA 사업 목표 달성 분야 ...	94
<표 3-15> ODA 지원 사업 수행의 적절성	95
<표 3-16> 응답자 국적별 ODA 지원 사업 수행의 적절성	97
<표 3-17> 한국의 ODA 지원 사업 개선 필요 사항	98
<표 3-18> 응답자 국적에 따른 ODA 개선 필요 사항	101
<표 3-19> ODA 사업 관련 제안 사항	102
<표 4-1> 면담조사 항목	108
<표 4-2> 면담 대상자 및 면담 기관	10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6
[그림 2-1] 국제개발협력 환경 주요 변화	15
[그림 2-2] ODA와 TOSSD 비교: 지원 범위	16
[그림 2-3] 한국의 다자 시스템에 할당된 ODA 비중	31
[그림 2-4] 한국의 시민사회단체(CSOs)에 할당하는 양자 ODA ...	32
[그림 2-5] 한국의 상위 수원국에 대한 양자 ODA	34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방법

한국의 경제 개발 및 사회 발전의 성공 사례에 아시아 개도국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한국은 벤치마킹의 글로벌 허브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역량을 제고하고, 아시아 개도국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선진화된 경제 및 사회 개발 정책 관련 정보 및 경험을 아시아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아시아 개도국들의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경우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관심과 현지 수요가 높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개발에 관한 ODA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의 선진 정책과 제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정책과 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은 문헌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국내외 직업교육훈련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실태조사 및 면담조사 실시, 연구 결과 공유 및 정책 제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다.

2. 문헌 분석

국내의 ODA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9월, 유엔개발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발협력 4대 구상을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 무상원조의 주제·분야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무상원조 사업을 주제·분야별로 통합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브랜드화 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가시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ODA와 관련한 국내 환경 변화는 국제개발협력의 참여 다변화, ODA 재원 확대 제약,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 요구 등이다.

국외 ODA의 주요 환경 변화로는 OECD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 공적 지원방안의 논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의 중요성 부각을 들 수 있다. 총 공적 지원이란 ODA 이외의 공적 재원 및 공적 행위에 기초한 모든 재원을 가리키며, 양허적·비양허적 재원과 공여국에 수익이 돌아가는 금융 수단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Post 2015의 논의에서는 정부, 민간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면서 공적 재원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재원까지 포함한 통계,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총 공적 지원 개념을 신설한 것은 ODA 이외에 개발재원에 대한 통계 보고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세계은행은 개발재원의 부족함을 메꾸는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 자금 유입의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민간자금과 국내재원 동원을 촉진할 수 있는 ‘지능적인 개발재원(Intelligent Development Finance)’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정부는 유익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개발도상국 수혜자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투자를 통해 일련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조세 회피, 불법적인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규범적 대응 및 통계 작업 개선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 책무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민간 간 혁신적인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및 개발협력의 수혜 지역사회 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다주체 파트너십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가. 한국의 ODA 지원 정책 및 실적

한국의 ODA 지원 정책 및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2차 ODA 중기정책(2016~2020)은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고, 포괄적인 사업 모형에 기여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혁신 아이디어와 파트너십을 사업 기회로 전환하여 개발도상국 내에 시장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자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파트너국에 시장 개발과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는 ODA 사업으로 19억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국민총소득(GNI)의 0.14%였으며, 2014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DAC) 중 GNI 대비 ODA 비율로 볼때 24번째로 큰 공여국이며, 규모로 보았을 때는 14번째로 큰 공여국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 목표를 0.25%로 잡았으나 세계 경제의 침체, 한국의 긴축 재정 정책, GNI 산출의

변화 등의 이유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30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의 새로운 목표치를 0.30%로 잡았으며, 이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한국은 주요 단계별로 ODA 성장 계획을 세웠다.

나. 2016년도 ODA 사업 현황

한국의 2016년 ODA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612억 원 늘어난 2조 4,394억 원이며, 이 중 1조 9,479억 원(유상 8,937억 원, 무상 1조 542억 원)은 양자협력 사업에, 4,915억 원은 다자협력 사업에 책정되었다.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는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개발협력 4대 구상에 부합하는 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6년 8월 30일, 제2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ODA 예산이 당초의 2조 7,286억 원에서 2조 7,506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 수도 당초의 1,295개에서 1,307개로, 양자와 다자 비율이 82.7 대 17.3에서 82.8 대 17.2로, 유·무상 비율이 40.7 대 59.3에서 40.3 대 59.7로 변경되었다.

2016년은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및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해이다. 중점 협력 국가 재조정 이후 24개국에 대해 정부는 협력국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최종 정책 협의를 거쳐 연내 24개국에 대한 중점 지원 국가를 확정하였다.

다. 한국의 주요 아시아 개발도상국 ODA 지원 현황 분석

1) 라오스

1987~2013년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200.11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103.16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5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96.95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48.45%를 차지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유상원조가 증가하기보다는 무상원조가 유상원조와 거의 같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경향과 비교해 보면, 국제사회의 원조는 무상원조가 89%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무상원조가 51% 수준에 불과하다. 최빈국에 대한 원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상원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KOICA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에 대한 원조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등의 사후평가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얀마

1987~2013년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114.86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68.33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46.53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40.6%를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는 광물, 수자원 등 풍부한 자연자원 및 노동력, 역내 지리적 입지 등 경제 발전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나, 사회적 연결망, 역량 강화, 사회 참여의 열악한 기반이 이러한 우호 조건을 상쇄하고 있다. 미얀마 경제의 구조 변환을 위해서는 인프라, 금융, 인적 자본 등 모든 형태의 자본의 급속한 축적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적·사회적 자본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 및 연구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 연구 및 개발에 보다 많은 자원 배분이 필요하며, 양질의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 제공 강화 및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의 따가야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및 마그웨이 정비 직업훈련원 사업은 수원국의 공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현지화에 성공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은 학교교육 지원에서 탈피하여 미얀마의 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였다.

3) 방글라데시

1987~2013년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383.78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89.14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2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294.64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76.77%를 차지하고 있어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가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에 지난 2010~2014년까지 약 20개 부처·기관에

서 총 3억 994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무상원조 사업으로 동 기간 약 6,7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프로젝트 사업(17건)과 개발 컨설팅 사업(1건) 등을 진행하였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직업훈련원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성공적이었지만, 소프트웨어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인프라 구축이 유상원조로, 소프트웨어 지원이 무상원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국내기관 간 원조의 분절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원조 간에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

4) 베트남

1987~2013년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992.3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276.2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716.09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72.16%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매년 원조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규모보다 유상원조의 규모가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 베트남은 주로 동유럽과 구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소수의 국제기구들로부터 ODA를 지원받았으나, 1986년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ODA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ODA 지원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1차 기본계획 및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한국 정부의 중점 ODA 지원 대상국이 되었다.

현재 개발협력 4대 구상 중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에서 여성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EDCF는 베트남 5개 지역 한-베 직

업기술대학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Strategies Vision’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은 경제 개발과 직결되는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어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

5) 스리랑카

1987~2013년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410.45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113.66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2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296.78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72.31%를 차지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2012년까지 매년 총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에는 다소 감소를 보였으며, 무상원조가 증가하기보다는 양허상 차관인 유상원조가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한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는 전반적으로 사업 결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별 유상 및 무상별, 분야별 추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지원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 측면은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효과성과 지속성 측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6) 인도네시아

1987~2013년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386.65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193.45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5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193.20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49.9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유상원조가 증가하기보다는 무상원조의 규모가 더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원 사업 선정 시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사업을 지원하였으므로,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조기관 간 협력이 부족하였고, 단독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으로 사업 간 연계나 프로그램화된 지원 등은 미흡한 수준이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 측면에서 후속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7) 캄보디아

1987~2013년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396.54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169.27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4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227.27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57.31%를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매년 총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상원조 규모가 증가하기보다는 유상원조 규모가 큰 증가를 보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개발전략(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개방 지역 노동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이 4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어,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정부의 제도

를 실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훈련기관으로서의 장기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실태 분석

가. 실태조사 목적, 방법 및 주요 내용

본 조사는 아시아개발도상국(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총 11개국)의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에 근무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비롯한 한국의 ODA 지원 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지원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연수·교육 이수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한 해당 분야 전문가 58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6년 8월 4일~9월 12일까지 5주간 진행되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공통 질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및 향후 지속가능성 여부로 구분하였다.

나.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국적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총 92명의 국적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22명(23.9%), ‘베트남’ 12명(13.0%), ‘인도네시아’ 11명(12.0%) 및 ‘필리핀’ 11명(12.0%), ‘미얀마’ 10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2) 한국 ODA 사업 인지도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한국 ODA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고 있음’(34.8%), ‘매우 잘 알고 있음’(31.5%), ‘보통’(23.9%) 순으로 응답자들은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한국 ODA 사업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 ODA 사업 만족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10). 응답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러함’(43.7%), ‘매우 그러함’(35.6%), ‘보통’(17.2%) 순으로 나타났다.

4) 한국 ODA 사업 목표 달성 분야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 제도/정책 자문’(64.8%),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 개발’(46.6%), ‘인프라 구축(직업교육훈련기관 건립, 기자재 설비 등 인프라 지원)’(42.0%) 순으로 나타났다.

5) ODA 필요 분야

응답자 국가에 분야별로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자격제도 구축’(4.33점),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4.31점), ‘직업교육훈련 평가’(4.20점) 순으로 나타났다.

6) 한국 ODA 사업의 문제점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하여 3순위까지 알아본 결과 1순위 응답으로는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27.1%), ‘낮은 지원 규모(액수)’(17.6%) 순으로 높았고, 2순위 응답으로는 ‘중장기 지원 계획 미흡(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22.9%), ‘낮은 지원 규모(액수)’(18.1%) 및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18.1%) 순으로 높았으며, 3순위 응답으로는 ‘중장기 지원 계획 미흡(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25.6%), ‘낮은 지원 규모(액수)’(23.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연수생들의 선정과 교육이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지원 기간의 제한’, ‘아세안(ASEAN) 국가와의 협력 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다.

다.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수원국의 심층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에서 수원국은 현지에 대한 이해와 현지화된 프로그램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는 수원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DA가 효율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ODA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제기한 ODA의 문제점으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의 부족을 들고 있다.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의 미흡함은 ODA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고의 낭비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중장기 ODA 계획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인 지원 프로젝트 수행 실태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중장기 ODA 계획 수립’의 미비이다. 단기적인 일회성 원

조는 수혜국의 중장기적 국가 발전 및 지원 사업의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원조 사업의 성과조차 퇴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적개발원조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문가, 사업 평가 전문가 등을 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문가 양성은 대학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직업교육훈련 분야 공적개발원조 면담조사 분석

가. 면담조사 목적 및 방법

면담의 목적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ODA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 사안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면담 대상은 주로 연구의 대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ODA 전문가도 포함하였다.

나. 면담조사 결과 분석

1) 사업 평가의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지원

국내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행기관은 자체 평가적으로 평가를 의무화되었으나, 대부분의 무상원조 수행 부처는 사후평가 및 환류 시스템 미비로 평가절차가 불분명하고 실적도 저조하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평가 담당 부서가 사업 실시 부서와 완전하게 독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공적개발원조 평가의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전에 2~3년마다 순환근무를 함에 따라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2)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정책 추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개별 시행 기관이 이미 계획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총괄하는 성격이 강하여 원조 수원국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적 상황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 되고 있다. 현재 KOICA는 정부의 통합적 공적개발원조 지원체계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유·무상 통합 수립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ODA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직업교육훈련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 요구

최근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사업 분야는 사업 수행 부문별, 개발도상국 지역별 지원 등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담당자와 국책 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대학 등의 다양한 주관 기관들과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활용하여야 한다.

4) 부처 간 연계 강화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ODA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외교부 및 재외공관(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 협력국 재외공관에 ODA 전문관을 파견하고, 각 부처와 ODA 담당 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5) 수원국의 선정 및 수원국의 제시 목표

베트남과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거

시 목표가 불분명하다. 현재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공여국의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수원국 선정시 수원국의 체계적인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수원국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수원국의 수용성 등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결론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추적인 국가이다. 한국의 개발 경험은 주요 선진국들의 개발 경험과는 달리 현재 개발도상국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비슷한 여건에서 시작하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성장모델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한국의 성장모델은 주요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원조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원국 중심의 개발수요와 전략을 고려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충분히 전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수원국인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정책 수요와 개발전략에 맞는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4대 구상 등 지속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

한 사업으로 2016~2020년까지 종합적인 이행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등이다. 이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4대 구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처는 연도별 공적개발원조 시행계획을 통해 정합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국제기구 기여금 지원 및 민간재원 연계를 통해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 기구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나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문헌 분석, 실태조사,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정책토론회 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제언에 제시된 합리적인 의견에 연구자,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 등 ODA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 정책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 1) 추진체계 및 평가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ODA 사업 담당 추진 기관 일원화 및 지역별·국가별 전략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2) 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직업교육훈련원 건립 등 하드웨어 지원, 그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3) 직업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의 내실화, 수원국의 전문성 활용, 국내 직업훈련 기관의 전문화와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4)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피드백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지원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평가체계 강화, 전문 평가기관 활용,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5) 민·관 협력 사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책 컨설팅 활용 및 성공적인 교육훈련 ODA 사업 전파를 통해 우리 나라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한다(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추진 방법

제4절 연구의 대상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경제 개발 및 사회 발전의 성공 사례에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한국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¹⁾ 역량을 증진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해외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로서 짧은 시간에 변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에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을 도와주는 핵심 국가이다.

한국의 선진화된 국가 경제·사회 개발 정책 관련 정보와 경험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정책 개발을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의 경제 발전, 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에 하는 각종 공여를 말함. ODA 개념 요소는 다음과 같음. 첫째, 공공기관의 원조를 말하며, 개인·NGO·민간기업의 원조는 ODA에 포함되지 않음. 둘째, OECD 지정 수원국에 대한 원조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타 국가에 대한 원조는 ODA가 아님. 셋째, 수원국의 경제 발전, 복지증진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ODA가 아님. 넷째, 차관의 경우 증여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25% 미만인 차관은 ODA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아시아 국가들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교육훈련이 중점 분야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원 요청 및 협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자격검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자문과 직업훈련 기관 건립 등의 제도 구축,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의 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로젝트 사업 중심에서 프로그램형 사업, 즉 기술, 경험, 노하우 중심의 소프트웨어형으로 전환되고 있다(이남철, 2015, pp. 80-9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다양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오스의 경우, 2006년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 연수, 2007년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설립 프로젝트 및 중등학교 교과서 보급 사업, 2008년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발 연수 등을 수행하여 양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를 위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기술 인력 수요 파악 미흡,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 시스템 부재 등으로 직업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미흡한 수준이다(이남철, 2015).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경우,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관심과 현지 수요가 높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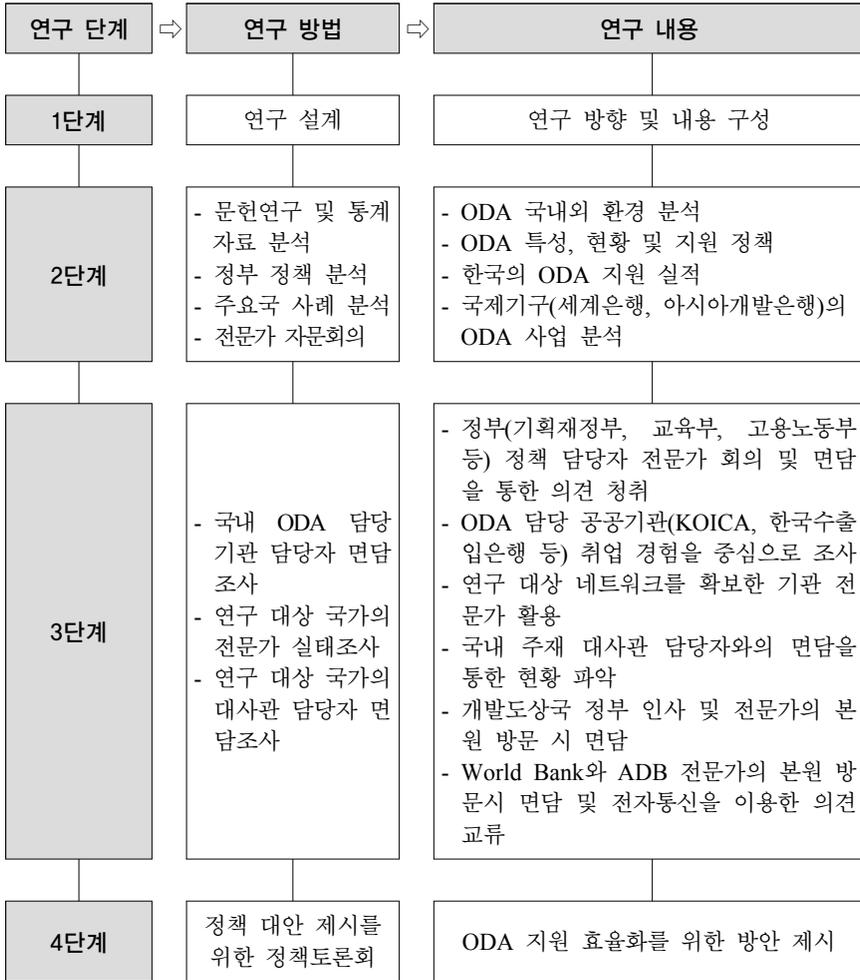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개발에 관한 ODA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의 선진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제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절 연구의 추진 방법

본 연구를 위한 방법은 선행 연구 문헌 분석 및 관련 정책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국내외 직업교육훈련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실태조사 및 면담조사 실시, 연구 결과 공유 및 정책 제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다. 특히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에서 개발도상국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전자통신 등을 활용하여 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림 1-1]은 본 연구의 추진 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다.

6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정책 지원방안 연구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제4절 연구의 대상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5년에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ODA 기본계획을 고려, 국내외 원조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개로 중점 협력국을 재조정했다.²⁾ 이 중 아시아는 11개국으로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1991~2014년까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유·무상 원조 실적이 있고 2016년 사업 진행 중이며, 2017년 ODA 사업 예정인 국가와 정부의 4대 개발협력 사업의 시범 국가인 미얀마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몽골, 네팔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ODA 사업 유형인 프로젝트, 초청연수, 기술협력, 민간협력, 프로그램 중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 실적만 있고, 필리핀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2)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제2장

문헌 분석

제1절 국내외 ODA 환경 분석

제2절 선행 연구 분석

제3절 한국의 ODA 현황 분석

제4절 한국의 주요 아시아 개발도상국
ODA 지원 현황

제2장 | 문헌 분석

제1절 국내외 ODA 환경 분석

1. 국내의 ODA 환경 분석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개발협력 4대 구상은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주제·분야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무상원조 사업을 주제·분야별로 통합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브랜드화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가시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ODA와 관련한 국내 환경 변화는 국제개발협력의 참여 다변화, ODA 재원 확대 제약,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 요구 등이다(<표 2-1> 참조). 국제개발협력의 참여 다변화 중 공공 부문에서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2010년 36개, 2014년 45개였으며, 2017년도에는 총 42개 기관(지방자치단체 9개 포함) 1,295개 사업으로 2조 5,177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국제개발협력 위원회, 2016).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ODA 규모 또한 증가 추세이다. 2015년 순 ODA 지원 실적은 총 19억 달러이고(전

년 대비 실질 증가율 8.3%), GNI 대비 ODA 비율은 0.14%(2030년까지 0.3% 달성 목표)이며, OECD 28개 회원국 중 ODA 규모 기준 14번째, GNI 비율은 24번째에 해당한다(OECD, 2016d).

민간 부문에서는 NGO에 의한 무상원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및 잠재적 시장인 개도국 진출 방법으로 개발협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ODA의 규모적인 측면에서의 ODA 재원 확대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ODA에 대한 높은 관심 및 국내 재정의 압박에 따른 ODA 증액 한계에 따라 ODA의 효과성, 투명성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표 2-1〉 국내 환경 분석

국제개발협력 참여 다변화	ODA 재원 확대 제약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부문 - ODA 사업 참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수 36개(2010년) → 45개 (2014년) - 지방자치단체 ODA 규모 또한 증가 추세 • 민간 부문 - ‘NGO에 의한 무상원조’는 지속 증가 추세 -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및 잠재적 시장인 개도국 진출 방법으로 개발협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 정체 - 2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향후 5년간의 성장률도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재정 상황 개선 한계 -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GDP 대비 1% 이상의 적자 • 복지 재정 수요 지속 확대 - 취약계층, 청년고용 지원 등 국내 복지재정 수요 지속 확대 • 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 지지도 정체 - 국내외적 인지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ODA 증액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정체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성, 투명성 강화 요구 - ODA에 대한 높은 관심 및 국내 재정의 압박에 따른 ODA 증액 한계에 따라 ODA의 효과성, 투명성 강화 요구 증가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11.10.), 제22차 회의 자료 및 저자 제작성. pp.16-21.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³⁾에서 2015년 수립한 제2차 ODA 기본계획에서는 국내외 원조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개로 중점 협력국을 재조정하였다(<표 2-2> 참조).

〈표 2-2〉 1차 및 2차 ODA 중점 협력국 비교

지역	2차 ODA 기본계획 수립 시 중점 협력국 조정 결과(안)	1차 ODA 기본계획 수립 시 중점 협력국(2011~2015)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11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11개국)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7개국)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카메룬, 르완다, 우간다(8개국)
중동/CIS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2개국)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4개국)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4개국)
오세아니아	-	솔로몬 군도(1개국)
	24개국	26개국

주: 1차 기본계획 수립(2011~2015) 계획은 2010년 10월 ‘제7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통해 26개 유·무상 ODA 통합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21차 회의 자료. pp.3).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위원회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음. 동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기구임.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연간 ODA종합시행계획, ODA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임. 그리고 위원회는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ODA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됨.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약칭 실무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실무위원회는 기본법 제7조 제6항에 의거해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장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미리 협의·조정하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있음(국무조정실, 2016).

2. 국외의 ODA 환경 분석

국외 ODA의 주요 환경 변화로는 OECD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 공적 지원방안의 논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의 중요성 부각을 들 수 있다.

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 공적 지원(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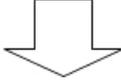
총 공적 지원이란 ODA 이외의 공적 자원 및 공적 행위에 기초한 모든 재원을 가리키며, 양허적·비양허적 자원과 공여국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금융 수단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Post 2015의 논의에서는 정부, 민간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면서 공적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자원까지 포함한 통계와 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총 공적 지원 개념을 신설한 것은 ODA 이외의 개발재원에 대한 통계 보고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OECD, 2016b, pp. 13-14).

OECD 회원국들은 총 공적 지원이 ODA의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ODA 사업의 본래 목적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총 공적 지원에 포함되는 재원은 ODA로 계상되지 않는 개발 목적의 공적개발자원(보충, 지분투자 등) 같은 민간 재단의 기부, 해외 거주자의 송금, 신흥 공여국들이 지원하는 남남협력 원조 등이다. [그림 2-1]은 ODA와 총 공적 지원의 범주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이 제도는 국제사회가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모든

공적 주체들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속가능 개발재원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TOSSD의 도입으로 공적개발 자원 전반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및 자원 동원 촉진이 예상된다.

[그림 2-1] 국제개발협력 환경 주요 변화

	개발분야 확대	공여주체 확대	지원방식 다각화
이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MDGs - 인간·사회 분야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C 회원국 주도 정부·원조기관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위주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DGs 경제·사회·환경 분야 포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C 非회원국 및 민간 부분의 참여 확대 개발지원 제공기관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금융협력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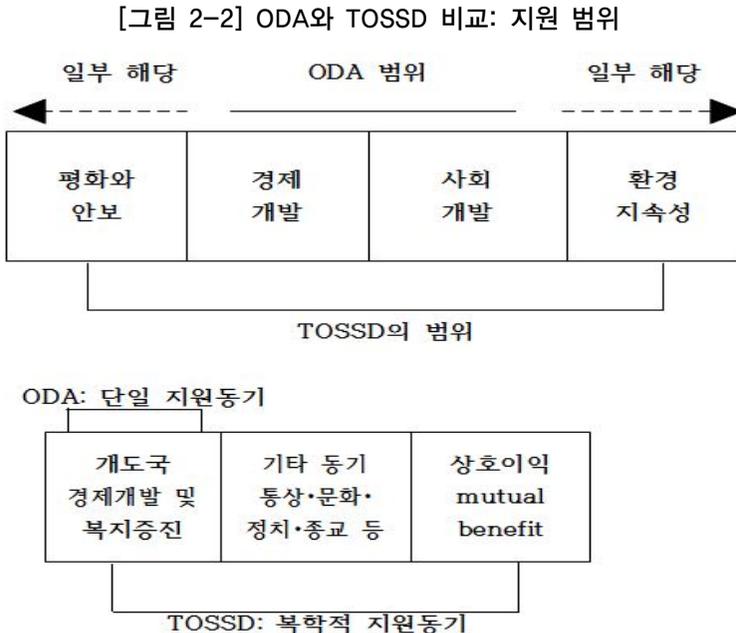
자료: OECD(2016b). pp.7~8.

TOSSD는 ODA를 대체하지 않는 보완적 성격의 지표이며, ODA는 TOSSD 도입 이후에도 공여국의 개도국 개발자원 조성 노력을 측정·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될 것이다.

국제 원조 체제를 감시하는 국제 NGO들의 연대체인 원조의 실체 (RoA: Reality of Aid)는 이와 같은 OECD의 논의에 대해 OECD DAC는 ODA/GNI 0.7% 공약의 전반적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RoA는 ODA 개념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새로운 기준들이 협력 대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ODA 부채 탕감, 난민, 이주

등 국내에서 지원되는 것은 제외되어야 하고, 유·무상 원조 중 증여 부분만 측정되어야 하며, 평화와 안보 및 군사 분야 지출은 ODA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총 공적 지원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OECD, b. pp.7~8).

특히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자국의 이익 확대(통상·문화·정치 등)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여 주체들은 복합적인 지원 동기를 인정하고, 개발도상국과 공여국의 상호 이익 추구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그림 2-2] 참조).



자료: OECD(2016b), TOSSD 1차 개요서, pp.15.

<표 2-3>은 경제, 문화, 종교 분야에서의 활동 예시와 상호이익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표 2-3〉 상호 이익 추구 활동 예시

분야	활동 예시	상호 이익
경제	개발금융기관(DFIs) 활동 (금융·기술협력 등)	(공여국) 자국 기업 해외 진출 (개도국) 민간 부문 성장 촉진
문화	재외동포 문화 지원 활동 (문화 교육, 초청연수 등)	(공여국) 문화 홍보 및 영향력 확대 (개도국) 소수집단 문화활동 지원
종교	국영 종교 단체의 해외 사회사업 (지역 교육·보건 사업을 포함한 해외 이슬람 사원 지원 사업 등)	(공여국) 종교적 영향력 확대 (개도국)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

자료: OECD(2016. 6.b). pp.14-18.

TOSSD는 지속가능발전목표(SG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위한 자금 조달, 개발 선행 조건 및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이용 가능하며 외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자원의 투명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순전히 상업, 군사 또는 문화적 특성의 투자는 정책 고의성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속적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민간 부문 금융에서 또한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중요한 점을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민간의 인터페이스와 TOSSD에 대해 좀 더 완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투자의 조직화, 그리고 공공 및 민간 협동의 SDGs의 실현이 함께 가능해질 것이다.

TOSSD의 통계적 프레임워크의 비교우위는 그 자체의 포괄적 성격

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의 일반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책임을 보장한다. 또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전통적이고 새로운 방식과의 협력·조화가 가능할 것이고, 개발도상국들은 세부적인 프로젝트 수준의 정보를 통하여 외부 개발 금융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수혜국들이 발전할 수 있는 관점은 수혜국들이 국가 수준에서의 자료 수집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자원으로부터 넓은 범위의 개발 금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수혜국 간에 학습 및 우수 사례의 교환을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TOSSD에 대한 기능적이고 실현 가능한 관리 구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제표준 통계적 프레임워크의 가치는 보고가 된 자료의 품질, 관련성, 그리고 완전성에 기초를 둘 것이다. 관리 구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된 측정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TOSSD의 감시 제도를 발전시키고 동의하는 국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중요할 것이다. 향후 궁극적인 목표는 포괄적이고 대표적이며 기술적으로 능력 있는 국제 기관을 설립하여 TOSSD의 높은 통계 기준 및 효과적인 계획 보고를 촉진하는데 있다(OECD, 2016.b, pp.17~19)

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부각⁴⁾

세계은행은 개발재원의 부족함을 메꾸는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 자

4) OECD(2016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Business Opportunities”을 요약한 것임.

금 유입의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민간자금과 국내재원 동원을 촉진할 수 있는 ‘지능적인 개발재원(Intelligent Development Finance)’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OECD는 비즈니스 기회로서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부제를 달아 2016년도 개발협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재원의 공급처로 기대되는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직접 투자, 둘째, 새로운 투자 모델(민간-공공 혼합 금융), 셋째, 공적 금융 수단을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 모니터링 및 측정 방식, 넷째, 사회적 영향 투자, 다섯째, 책임 있는 기업 행동 등이다. 특히 향후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개발재원의 주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질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 가기 위해 사회적 영향 투자의 확대, 책임 있는 기업 행동 원칙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개발재원으로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UNCTAD에 따르면, 매년 3.3~4.5조 달러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이 가능하지만, 현재 연간 투자 규모는 1.4조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5년에 1,300억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도국에 지원되었고, 이는 최빈 개발도상국의 주요 개발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5~2030년간 투자 소요액을 비교하면 총 연간 투자 필요액은 3.9조 달러이며, 현재 연간투자액은 1.4조 달러로서 2.5조 달러의 갭이 발생하고 있다(UNCTAD, 2014).

이와 같은 ODA의 재원부족을 충족하기 위한 민간투자는 빈곤 감축과 경제 성장을 위해 원조보다 중요한 재원이다. 기업은 신흥 시장

인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람과 환경을 이롭게 하는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민간 기업은 경제 산출물의 60%, 자본 흐름의 80%, 일자리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인프라·혁신·사회서비스 및 기타 다양한 개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OECD, 2016b). 따라서 지속가능 비즈니스는 통상적인 비즈니스가 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 정부는 유익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개도국 수혜자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투자를 통해 일련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조세 회피, 불법적인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규범적 대응 및 통계 작업 개선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 책무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민간 간 혁신적인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및 개발협력의 수혜 지역사회 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다주체 파트너십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OECD는 개발협력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되기 위한 10가지 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OECD, 2016b).

첫째, 핵심 주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둘째, 공동 원칙, 표준, 정의, 범위 및 방법론에 대해 합의한다.

셋째, 재무적인 목표와 개발목표 간에 연계한다.

넷째, 극빈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한다.

다섯째, 분야 및 국가들 간 정책정합성(coherence of policies)을 제고하고 글로벌 및 현지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효과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연구를 촉진한다.

일곱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여덟째, 국제표준과 지표에 맞게 모니터링하고 보고함으로써 투명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증진한다.
 아홉째, 지식과 기술적 노하우 공유를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을 창설한다.
 열째, 파급 효과, 결과,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증거를 구축한다.

제2절 선행 연구 분석

김철희 외(2012)는 직업훈련 분야 ODA 통합 추진 전략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ODA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직업훈련 ODA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원조의 효과성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게 재조직하였다. 효과적인 직업훈련의 공적개발원조 수행을 위해서 정부가 선정·발표하는 직업훈련 분야 수원국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선행 문헌 연구 및 정책 자료 분석, 수원국 현황 분석, 수원국 공적개발원조 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 출장 면담, 국내 전문가 정책협의회 및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고혜원·이지은(2014)은 개도국 여성 직업능력개발 ODA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다. 즉, ODA 사업 시행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시행하여 온 베트남 여성 직업능력개발센터 구축·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한 발전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평가 대상 사

업 관련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친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 개발, 베트남 현장 평가, 사업 평가 및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개도국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여성 분야 ODA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남철(2015)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ODA를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 및 자료 분석, 직업교육 ODA 추진체계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연구기관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역할 강화 방안으로는 ODA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시행기관과 연구기관의 연계 강화, 사업 수행 자문(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으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역량 강화,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한 ODA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정지선 외(2007)는 아·태지역 직업교육훈련기관 실태조사 사업을 위해 라오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매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국내 유관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을 아·태지역 국가(2006년 라오스, 2007년 캄보디아, 2008년 베트남 등)에 파견하여 해당 국가의 현재 시행 중인 직업교육훈련 상황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해당국의 직업교육훈련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과 비교하여 수원국에 적용하여 유용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원권 외(2008)는 한국 교육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요 발굴 및 타당성 조사(2007년, 라오스·캄보디아 수요 발굴 후속조치 추진)를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의 원조 기금(EDCF 차관)으로 지원된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NPIC)과 라오스 수파노봉 국립대학

등 교육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후속 지원 사업 발굴 및 효과적인 후속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한국형 교육 개발협력의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고, 교육원조 및 교육 수출 모델을 확립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문헌 및 자료 분석, 현장 실태조사(현장 방문 및 당사자 면담),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조정운 외(2012)는 신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대(對)중아시아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신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공공-민간 파트너에 기반을 둔 ODA 모델 및 이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문헌조사, 면담조사, 세미나 개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인프라 구축형 사업 유형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직업교육훈련 PPP에 초점을 맞춘 모형을 제시하였다.

홍은표 외(2014)는 교육 부문 ODA 종합평가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교육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문헌 분석, 현황 자료 분석, 설문,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한국 교육 ODA 사업에 대한 주요 수원국의 평가, 성과중심 관리에 기반을 둔 한국 교육 ODA 사업 평가, 한국 교육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도출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연구 대상국들의 과거 ODA 지원 실적과 우리나라 정부의 2016년과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연수 및 사업에 참여한 국가의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인력 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한 인력 풀(pool)을 활용하여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국내 ODA

관련 부처, 전문가 및 주한 대사관 직원들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ODA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제3절 한국의 ODA 현황 분석

1. ODA 지원 실적

가. OECD 회원국들의 ODA 지원 실적

2015년에 OECD DAC 회원국들을 통한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316억 달러 규모의 순 ODA가 지출됨으로써 전년 대비 6.9%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총수입(GNI) 대비 ODA 비율은 0.3%를 기록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ODA 계상에서 난민 수용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실질 증가율은 1.7% 수준이다. 난민 비용은 2014~2015년 간 66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에서 9.1%로 증가하였다. 5대 ODA 공여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프랑스이나, 유엔 권고 GNI 대비 ODA 비율(0.7%)은 주로 북유럽 국가(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및 영국)에서 높게 나타났다. G7 회원국들이 전체 ODA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DAC-EU 회원국들은 56%를 제공하고 있다. 최빈 개도국 대상 ODA 지출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키아

피아, 남수단, 탄자니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8개 수원국에 절반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6).

나. 국제기구의 주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ODA 지원 현황

1) 세계은행(World Bank)의 주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ODA 지원 현황

세계은행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2010년 약 5억 7,9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5억 9,1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현재까지 8억 2,200만 달러를 승인하였다(<표 2-4> 참조). 2010~2016년 현재까지 세계은행이 추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수는 123개이며, 총 승인액은 2,994억 7,000만 달러이다.

〈표 2-4〉 세계은행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직업교육훈련 승인액 (사업 수)(A)	교육 승인액 (사업 수)(B)	총 승인액	교육 분야 중 TVET 비중(A/B*100)
2010	579(16)	11,393(100)	58,747	5.08
2011	791(20)	6,068 (88)	43,006	13.03
2012	1,040(19)	7,746 (71)	35,335	13.42
2013	1,626(20)	8,672 (83)	31,547	18.75
2014	899(20)	7,379 (86)	40,843	12.18
2015	1,591(16)	7,700 (74)	43,140	20.66
2016	822(12)	6,677 (65)	46,860	12.31
계	7,348(123)	55,635(567)	229,470	13.21

자료: World Bank Project & Operations(http://www.worldbank.org/projects/search?lang=en&searchTerm=&mjsectorcode_exact=EX) 토대로 저자 작성(2016년 9월 20일 자).

<표 2-5>는 2012~2016년 현재까지 승인된 세계은행의 아시아 지역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한 것이다. 2012~2016년 까지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직업교육훈련 사업 수는 11개이며, 사업 예산은 718.21백만 달러이다.

<표 2-5> 세계은행 아시아 지역 직업교육훈련 추진 사업(2012~2016, 승인 기준)

연도	대상 국가	사업명	지원 규모 (백만 달러)
2016	인도	청소년기 소녀 및 청년기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사업	63.00
2015	필리핀	민다나오 복원 및 개발 사업 - 다자 기부	7.00
2015	방글라데시	기술 및 훈련 강화 사업 - 추가 재정 지원	100.00
2015	인도	소수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훈련	50.00
2015	중국	중국 신장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 사업	50.00
2014	스리랑카	기술 개발 사업	101.50
2013	방글라데시	추가적 재원: 기술 및 훈련 강화 사업	16.71
2013	중국	광둥 사회 보장 통합과 농촌 노동자 훈련	80.00
2012	방글라데시	취학 아동들의 Reaching Out of School Children II	130.00
2012	방글라데시	정보통신기술 성장, 고용 및 거버넌스 활용 사업	70.00
2012	중국	윈난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 사업	50.00
계			718.21

주: 2012~2016, 승인 기준.

자료: World Bank Project & Operations(http://www.worldbank.org/projects/search?lang=en&searchTerm=§orcode_exact=EV) 토대로 저자 작성(2016년 9월 20일 자).

교육 분야 핵심지표는 초등교육에 한정된 것이며, 직업교육훈련과 밀접한 ‘일자리’ 관련 핵심지표는 현재 개발 중이다.⁵⁾ 교육 분야 핵심

5) World Bank(2014b). Corporate Scorecards, p. 8.

지표는 학생 졸업률, 남녀비율, 역량 강화된 교사 수, 신축·개축된 교실 수, 공인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 개선 등이다.⁶⁾

2)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주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ODA 지원 현황

아시아개발은행은 인적자원 개발과 숙련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중시하면서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교육 지원 대비 직업훈련 분야 지원 비중은 2011년 이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교육사업 전체의 57.4%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2014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이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지원한 사업 수는 36개이며, 총 사업비는 938.2백만 달러이다(<표 2-6> 참조).

〈표 2-6〉 아시아개발은행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개, %)

연도	직업교육훈련 승인액 (사업 수) A	교육 승인액 (사업 수) B	총 승인액 C	교육 대비 직업교육훈련 비중(A/B*100)
2010	93.2 (3)	557.1 (10)	11,956	16.7
2011	13.9 (3)	585.4 (8)	16,095	2.4
2012	22.6 (6)	302.4 (17)	12,948	7.5
2013	250.1 (12)	1524.5 (25)	13,438	16.4
2014	558.4 (12)	972.1 (27)	12,253	57.4
계	938.2 (36)	3941.5 (87)		

자료: ADB Project Data(<http://www.adb.org/projects/terms-use>, accessed(2015. 7. 6.).

6) World Bank(2013a), 'Core Sector Indicators and Definitions' 26개 중점 분야에 대한 표준성과 평가지표 제시.

아시아개발은행은 장기 전략 프레임워크인 ‘Strategy 2020’와 연계하여 교육 분야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 분야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 ADB는 다음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변화하는 요구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 섹터 지원의 증가 및 지속적 연계, 둘째, 모든 수준의 교육에 대한 품질, 포괄성 및 관련 기술 향상 강조, 셋째, 국가 간 교육 요구의 차이를 반영한 하위 부문의 우선순위 조정, 넷째,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모델 적용, 다섯째, 지역 및 국경 간 협력 증진 등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주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분야 내 지식 공유 강화, 파트너십 구축, 측정 가능한 결과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략 및 이행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ADB는 국가 지원전략상 교육 분야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본 정책은 유연하고 전향적인 프레임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ADB는 기본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한편 중등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하위 분야의 지원을 위해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 한국의 ODA 지원 정책 및 실적

1) 한국의 ODA 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2차 ODA 중기정책(2016~2020)은 민간 부문과의 파트

너십을 다양화하고 포괄적인 사업 모형에 기여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자체적인 경험과 개도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혁신 아이디어와 파트너십을 사업 기회로 전환하여 개도국 내에 시장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으며, 해외 용자와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부문을 개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제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기관의 목표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된 업무에는 수출 용자, 무역 금융 및 보증 프로그램들이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의 경제개발협력자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용자, 지분 참여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2012년 PPP팀이 만들어진 이후로 EDCF는 몇 개의 PPP 시범 사업을 설계하고, 개도국에 사회간접자본의회(Social Overhead Capital Council)를 설치하며, 보증 제도를 소개해 왔고, 민간 부문 자본으로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 등을 위한 법적인 틀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자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파트너국에 시장 개발과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15년 KOICA는 사회적 기업에 종자 보조금을 제공하고 파트너국의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프로토타입 등 멘토링을 제공하였다. 또한 재정 지원에 대한 파트너국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 자선 단체들의 회전 기금을 통해 임팩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KOICA는 2015년에 포괄적 사업 기회

창출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Opportunity Creation Programme)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부터 약 4,300만 달러를 활용했다.

우리나라는 ODA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원들을 동원하여 집중시키고 또한 수혜국의 조세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내의 자원들을 동원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에 한국은 파트너국에서 조세 관련 활동으로 ODA 사업 중 4,200만 달러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도국의 무역 성과와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역에 대한 원조를 진흥한 것이다. 2014년에는 11억 달러(부문 배분 ODA의 46.4%)가 무역 관련 활동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2013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이다. 이 추세는 과거 몇 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 1억 달러를 담보하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주최국이다. 이 기금은 개도국에게 자원을 연결하고, 국제 및 국가 수준에서 환경 기금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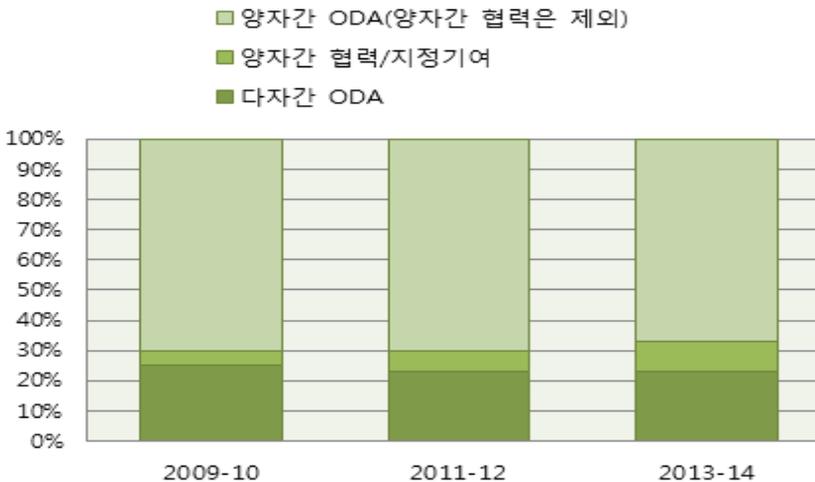
2) 한국의 ODA 지원 실적

2015년에 우리나라는 ODA 사업으로 19억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국민총소득(GNI)의 0.14%였으며, 2014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DAC) 중 GNI 대비 ODA 비율로 볼 때 24번째로 큰 공여국이며, 규모로 보았을 때는 14번째로 큰 공여국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 목표를 0.25%로 잡았으나 세계 경제의 침체, 한국의 긴축 재정 정책, GNI 산출의 변화 등

의 이유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30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의 새로운 목표치를 0.30%로 잡았으며, 이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한국은 주요 단계별로 ODA 성장 계획을 세웠다.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통합 ODA 비율이 평균 80.6%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2013년 한국의 통합 ODA 비율은 53.2%였다. 그리고 총 ODA에서 보조금 형태는 95.1%였으며, 2014년에는 ODA의 76.2%가 양자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한국은 다자 기구의 핵심 기금으로 총 ODA의 23.8%를 배분했고, 이와 비교하여 DAC국들은 평균 28.3%를 배분했다. 게다가 다자 기구(다중-중복/비핵심 기금)에 의해 시행된 특정 사업에 양자 ODA의 11.3%를 할당했다.

[그림 2-3] 한국의 다자 시스템에 할당된 ODA 비중



주: 2년 평균, 총 지출액.

자료: OECD(2016d). NET ODA.

2014년, 양자 원조의 82%는 파트너국 수준에 맞추어 계획되었다. 우리나라의 양자 프로그램은 나라별 프로그램 원조가 DAC국의 평균인 52.9%보다 아주 높은 비율이라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내부 기증 난민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채무 구제 등과 같은 다른 양자 지출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사업 유형 조정은 CPA의 77%에 달한다. 2014년의 양자 ODA 중 3억 4,600만 달러는 시민사회조직(CSOs: Civil Society Organisations)에 배당되었다. 한국이 CSO에 할당하는 ODA의 규모는 최근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동안 19.4%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0년 이래 양자 ODA의 비율 추이를 볼 때 비교적 일정한 수치이다. 2014년, 이 비율은 DAC국 평균인 17.4%의 2.3%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림 2-4] 한국의 시민사회단체(CSOs)에 할당하는 양자 ODA



주: 2년 평균, 총 지출액.
 자료: OECD(2016d). NET ODA

한국은 DAC에 북한에 대한 ODA에 해당하는 지원 부문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다. 2014년, 북한에 대한 지원 중 ODA에 해당하는 지원 부문은 약 1,330만 달러 정도로 평가되었다. 양자 ODA는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4년 극동아시아에 4억 2,690만 달러가 할당되었고, 남아시아 및 중동아시아에 2억 8,330만 달러가 배당되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는 3억 1,770만 달러가 할당되었으며, 2014년 양자 ODA 중 49.8%는 한국의 상위 10개 수원국에게 지원되었다. 26개 중점 파트너국 중 7개국이 상위 10개 수원국에 포함되어 있다. 취약 국가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2014년에 4억 3,66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총 양자 ODA 중 29.6%에 해당한다.

2014년 양자 ODA 중 38.1%는 최빈 개발도상국에 할당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총 5억 6,2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3년부터 안정된 비율이며, DAC 평균인 25.6%보다 높은 수치이다. 최빈 개발도상국은 2014년 가장 높은 비율로 양자 ODA의 수혜를 받았다. 2014년, GNI의 0.05%를 기록한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 ODA는 UN의 목표치인 GNI의 0.15%보다 낮았다.

2014년에 한국의 양자 ODA 중 40.7%가 사회 기반 시설 및 서비스에 할당되었고, 금액은 총 9억 6,710만 달러다. 세부적으로는 보건 2억 9,270만 달러, 교육 2억 2,870만 달러, 식수 및 위생 시설 2억 2,540만 달러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경제 기반 시설 및 서비스에 8억 1,290만 달러(양자 ODA 중 34.2%에 해당)가 할당되었으며, 특히 운송 및 저장 시설에 7억 7,130만 달러가 집중적으로 배당되었다.

[그림 2-5] 한국의 상위 수원국에 대한 양자 ODA



주: 2013~2014년 평균, 총 지출액.
 자료: OECD(2016d), NET ODA.

양자 ODA 중 3억 830만 달러는 양성평등을 위해 지원되었다. 2014년, 한국의 양자 지원 중 13.4%가 중요 또는 의미 있는 목적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이에 대한 DAC 국가 평균은 34.7%였다. 이는 2009년 2.4%에서 2013년 9.9%로 상승한 것으로 인구, 생식보건, 교육은 성에 초점을 맞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2015년, 성별 의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국은 양성평등관련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성별 시장에 보고하기 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 2014년, 양자 ODA 중 2억 4,180만 달러는 환경 분야에 지원되었다. 한국은 2020년까지 녹색 ODA를 30%까지 높이기 위해 전념하고 있

으며, 또한 개발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환경 및 기후 변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양자 지원 중 10.5%가 환경을 위해 할당되었고, 3%(6,930만 달러)가 기후 변화에 특정되어 할당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DAC 국가들은 환경에 32.2%, 기후 변화에 23.9%를 평균적으로 배당했다.

2. ODA 사업 현황

가. 2016년도 ODA 사업 현황

2014년 한국의 ODA 지원 규모(순 지출 기준)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총 18.5억 달러이며,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2014년 0.13%로 전체 29개 DAC 회원 중 16위를 차지했다. 2016년, 한국의 ODA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612억 원 늘어난 2조 4,394억 원이며, 이 중 1조 9,479억 원(유상 8,937억 원, 무상 1조 542억 원)은 양자협력 사업에, 4,915억 원은 다자협력 사업에 책정되었다.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개발협력 4대 구상에 부합하는 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8, pp.3).

한국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개발협력 4대 구상은 첫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72개 사업, 1,900억 원), 둘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40개 사업, 2,808억 원), 셋째,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128개 사업, 1,999억 원), 넷째,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21개 사업, 384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개도국의 여건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보편화·현대화한 농촌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신 농촌 개발 패러다임(28개국을 대상으로 8개 기관이 76개 사업에 629억 원 집행 계획)’이다.

개발협력 4대 구상 중 직업교육훈련 분야와 관련한 부문으로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과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사업이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의 주요 사업 내용은 라오스와 미얀마를 대상으로 보건 및 역량 강화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보건 여건 및 독립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미래 역량 강화 사업에서 미용, 봉제 등 분야별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대학 건립 사업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개도국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 EDCF의 베트남 5개 지역 -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 사업, KOICA의 여성 인권 및 여성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사업 등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5, pp.15~18).

2016년 8월 30일, 제2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ODA 예산이 당초의 2조 7,286억 원에서 2조 7,506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 수도 당초의 1,295개에서 1,307개로, 양자와 다자 비율이 82.7 대 17.3에서 82.8 대 17.2로, 유·무상 비율이 40.7 대 59.3에서 40.3 대 59.7로 변경되었다(<표 2-7> 참조).

〈표 2-7〉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11~2017)

(단위: 십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ODA (10억 원)	1,466.7	1,798.6	1,921.4	1,955.2	2,161.9	2,439.4	2,750.6
양자 간 원조 비중(%)	1,095.8 (74.7)	1,332.1 (74.1)	1,433.4 (74.6)	1,469.8 (75.2)	1,649.8 (76.3)	1,947.9 (79.9)	2,277.7 (82.8)
무상원조 비중(%)	636.7 (58.1)	804.9 (60.4)	885.5 (61.8)	930.5 (63.3)	1,016.0 (61.6)	1,054.2 (54.1)	1,360.5 (59.7)
유상원조 비중(%)	459.1 (41.9)	527.3 (39.6)	547.9 (38.2)	539.3 (36.7)	633.8 (38.4)	893.7 (45.9)	917.2 (40.3)
다자간 원조 비중(%)	370.9 (25.3)	466.4 (25.9)	487.9 (25.4)	485.4 (24.8)	512.2 (23.7)	491.5 (20.1)	472.9 (17.2)

주: 2014년까지는 OECD에서 확정 발표된 수치이며, 2015년은 잠정, 2016년은 예산, 2017년은 요구액 수치.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8, pp. 4).

나. 2016년 ODA 주요 추진과제와 전략⁷⁾

2016년은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및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해였다. 중점 협력 국가 재조정 이후 24개국에 대해 정부는 협력국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최종 정책 협의를 거쳐 연내 24개국에 대한 중점 지원 국가를 확정하였다(<표 2-8> 참조). 중점 협력 대상 국가 23개국 중 14개 국가가 중점 협력 분야로 교육을 포함한 TVET 분야를 채택하였다.

7) 이남철(2016),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LG): 향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의 전략과 과제. 국제개발협력, pp. 92~93.

<표 2-8> 국가별 4대 중점 협력 분야 도출(안)

국가	중점 협력 분야	국가	중점 협력 분야
가나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에너지, 지역개발	아제르바이잔	지역개발, 통신,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네팔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에티오피아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에너지
라오스	지역개발,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우간다	교통,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르완다	교육, 통신, 지역개발	우즈베키스탄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모잠비크	교통, 에너지,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인도네시아	교통, 공공행정, 물 관리 및 보건위생, 환경보호
몽골	교통,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캄보디아	교육,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미얀마	교통, 에너지, 공동행정, 지역개발	콜롬비아	지역개발, 교통, 통신, 공공행정
방글라데시	교통,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통신	탄자니아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교육, 에너지
베트남	교통,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파라과이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통신
볼리비아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에너지, 지역개발	파키스탄	지역개발, 에너지,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세네갈	교육,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페루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스리랑카	교육,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필리핀	교통, 지역개발,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재해예방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3.).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8~2019년까지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은 2억 316만 달러 규모이다. <표 2-9>는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실적을 설명한 것이다.

〈표 2-9〉 기술 인력 양성 TVET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실적

순서	수원 국	사업 내역	기간	사업 규모 (만 달러)
1	네팔	네팔TITI(직업훈련 교사 양성기관)역량 강화 사업	'15~'19	500
2	동티모르	동티모르 베코라 기술고등학교 지원 사업	'13~'15	800
3	르완다	르완다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 2차 지원 사업	'13~'15	500
4	르완다	르완다 직업훈련 역량 강화 사업	'14~'17	500
5	리비아	리비아 IT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14~'15	100
6	모잠비크	모잠비크 마톨라 산업학교 역량 강화 사업	'13~'17	650
7	몽골	한몽 기술대학교 역량 강화 사업	'10~'16	576
8	미얀마	미얀마 기술교사양성센터 설립 사업	'15~'18	1,150
9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화학산업기술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13~'16	500
10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라즈샤히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15~'19	850
11	베트남	베트남 산업안전보건훈련센터 개발 지원 사업	'13~'15	340
12	베트남	베트남 중부 고원 소수 민족 청소년직업대학 향상 사업	'13~'15	500
13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 사업	'14~'16	600
14	세네갈	세네갈 고등직업훈련원(ISEP) 설립 사업	'15~'18	900
15	스리랑카	스리랑카 기능대학(CoT) 및 훈련원(TC) 자동차 공과 개선 사업	'13~'15	300
16	아이티	아이티 까라폴 의류기술훈련원 건립 사업	'13~'16	350
17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14~'16	600
18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08~'16	4,572

<표 계속>

40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정책 지원방안 연구

순서	수원 국	사업 내역	기간	사업 규모 (만 달러)
19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직업역량 배양 사업	'12~'15	900
20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주 직업훈련학교 건립 사업	'13~'18	550
21	우간다	우간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11~'15	450
2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 직업훈련 교육 역량 강화 사업	'13~'16	550
23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 역량 강화 컨설팅 및 시범 사업	'14~'17	800
24	이라크	이라크 남부 4개 주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11~'16	800
25	이집트	이집트 통합 기술교육 클러스터 종합 계획 수립 사업	'14~'15	100
26	카메룬	카메룬 직업훈련교사양성센터 건립 사업	'13~'15	640
27	캄보디아	캄보디아 기술교육고등학교 개발 사업	'13~'15	200
28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14~'16	500
29	파라과이	파라과이 고등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10~'15	538
총액				20,316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2016.9.25.).

직업훈련 분야의 수원국은 라오스·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 요르단·팔레스타인 등의 중동 국가, 이집트·콩고 등의 아프리카 국가, 과테말라·엘살바도르 등의 중남미 국가 등으로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국가이다. 최근 5년간 직업훈련 분야에서 한국의 주요 ODA 사업 실적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TVET 분야 ODA 추진 실적

지역	국명	사업 명	사업 기간
아시아	라오스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비엔티안)	'07~'08
아시아	미얀마	따가야 지역 직업훈련원 건립	'07~'09
아시아	방글라데시	다카시 미르푸르 직업훈련원 개·보수 및 역량 강화	'07~'09
아시아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 강화	'07~'08
아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술문화협력센터 건립	'06~'08
아시아	캄보디아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축 지원(프놈펜)	'07~'09
아시아	스리랑카	자프나기능대학 기능 개선 사업	'04~'07
아시아	중국	취업훈련기술지도센터 설립 지원	'97~'01
아시아	아프카니스탄	아프카니스탄 직업훈련 지원	'02~'09
아시아	아프카니스탄	바그람 PRT 직업훈련 건립	'09~'10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레살람공대 ICT센터 시설 개·보수 및 역량 강화	'06~'08
아프리카	이집트	자동차 직업훈련센터 역량 강화	'06~'08
아프리카	이집트	중등기술학교 시설 개선 및 역량 강화	'07~'08
아프리카	콩고	중등학교 교육정보화 등	'07~'09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 직업기능검정원 지원	'99~'01
중남미	과테말라	청소년직업훈련원 자동차정비훈련소 건립	'07~'09
중남미	니카라과	직업훈련원 건립 EDCF 용역	'09~'11
중동	요르단	자르카 직업훈련원 증축 및 역량 강화	'07~'09
중동	팔레스타인	제닌시 기술고등학교 건립	'07~'09
중동	레바논	5개 학교 건립(브리텔 및 텡닌시)	'06~'08
중동	리비아	트리폴리시 건축 분야 직업훈련원 지원	'07~'08
중동	이라크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	'04~'07
중동	이라크	안바르 직업훈련 역량 강화	'08~'09
CIS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직업훈련원 건립	'07~'11
CIS	카자흐스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스템 구축 지원	'06~'08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2016. 9. 16.).

다. 2017년도 ODA 사업 현황

2017년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구상 사업 예산 및 세부 현황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2017년도 개발협력 구상 사업 예산 및 세부 현황(1)

부 처	세부 사업명	사업명	사업 유형	총 사업 예산 (단위: 억원)	사업 기간	구분 (양·다자)
기획 재정부	서아시아 차관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직업훈련 및 감파하 고등기술센터 건립 사업	프로젝트	308	2014~2019	양자 유상
	동아시아 차관	베트남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 사업	프로젝트	389	2011~2017	양자 유상
여성 가족부	국제개발 협력 (ODA)	개도국 여성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초청연수	(3.0)	2010~	양자 무상
	국제개발 협력 (ODA)	개도국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 (라오스)	기타기술 협력	18.00	2016~2018	양자
	국제개발 협력 (ODA)	개도국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 (스리랑카)	기타기술 협력	(3.0)	2017	양자 무상
	국제개발 협력 (ODA)	개도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민관협력	(2.0)	2013~	양자 무사
외교부	필리핀 국가원조	필리핀 UNESCO 타클로반 지역 학교 밖 소녀를 위한 교육사업 (2017~2019/600만 달러)	프로젝트	68.40	2017~2019	다·자성 양자

<표 계속>

부 처	세부 사업명	사업명	사업 유형	총 사업 예산 (단위: 억원)	사업 기간	구분 (양·다자)
	네팔 국가원조	네팔 UNESCO 포괄적 성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소녀 및 여성 역량 강화사업 (2017~2021/500만 달러)	프로젝트	57.00	2017~2021	다·자성 양자
	글로벌 연수	여성 인권 및 여성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초청연수	4.86	2016~2018	양자 무상

주: 1) 자료 중 아시아 국가에 해당하는 사항만 저자가 별도 추출하여 자료 작성.

2) ()는 2017년 예산.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5.30., pp.33~103).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2단계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로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100만 달러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 사업⁸⁾ 등을 활용한 직업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육성 및 교사연수, 직업훈련원 설립을 통한 산업 기술 인력 양성, 개도국 산업 수요 급증에 부응하여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기회 확대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8) 에티오피아 티 그라이 주 직업훈련학교 건립 사업(KOICA),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교육부),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 설립 사업(KOICA), 앙골라 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 사업(EDCF) 등임(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5.).

〈표 2-12〉 2017년도 개발협력 구상 사업 예산 및 세부 현황(2)

부처	세부 사업명	사업명	사업 유형	총 사업 예산 (단위: 억원)	사업 기간	구분 (양·다자)
기획재정부	서아프리카 차관	앙골라 산업고등 기술센터 건립 사업	프로젝트	412	2016~2018	양자 유상
교육부	유네스코 저개발국 교육 발전기금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 교육 지원 사업(2차)	프로젝트	142.00	2016~2020	다·자성 양자
외교부	에티오피아 국가원조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주 직업훈련학교 건립 사업 ('13~'18/645만 달러)	프로젝트	72.89	2013~2017	양자 무상
	르완다 국가원조	르완다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 2차 지원 사업 ('13~'17/500만 달러)	프로젝트	56.50	2013~2017	양자 무상
	르완다 국가원조	르완다 직업교육훈련 ('14~'17/500만 달러)	프로그램	56.00	2014~2017	양자 무상
	우간다 국가원조	우간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11~'17/450만 달러)	프로젝트	51.75	2011~2019	양자 무상
	세네갈 국가원조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 (ISEP) 설립 사업 ('15~'19/900만 달러)	프로젝트	92.70	2015~2019	양자 무상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원조	카메룬 국립직업훈련 교육원 건립 사업 (2013~2017년, 640만 달러)	프로젝트	72.32	2013~2017	양자 무상
	글로벌 연수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전문가 양성(아프리카)	초청연수	4.86	2017~2019	양자 무상

주: 자료 중 직업훈련에 해당하는 사항만 저자가 별도 추출하여 자료 작성.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5.30., pp.33~103).

ODA 사업 예산이 지원되는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에 가장 많은 37.4%, 아프리카에 18.0%, 중남미에 5.9%, 중동·독립연합국가(CIS)에 8.1% 등이 배정되었다. 사업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의 11.5%, 교통 10.9%, 수자원 9.4%, 교육 9.4%, 공공행정 9.3%, 에너지 7.3% 등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8, pp.5).

제4절 한국의 주요 아시아 개발도상국 ODA 지원 현황

1. 라오스 ODA 지원 현황 분석 및 평가

가. 지원 사업 현황 분석

<표 2-13>은 1987~2013년 라오스에 대한 ODA 지원 실적을 설명한 것이다. 동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200.11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103.16백만 달러로 전체의 5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96.95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48.45%를 차지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유상원조가 증가하기보다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거의 같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2-13〉 유·무상 원조 지원 실적(라오스, 1987~2013)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무상	유상	총 지원액
1987~1999	1.87	-	1.87
2000	0.6	-	0.6
2001	0.67	-	0.67
2002	1.47	-	1.47
2003	2.11	-	2.11
2004	3.64	-	3.64
2005	3.69	6.08	9.77
2006	5.31	8.18	13.55
2007	8.71	9.19	17.9
2008	9.42	2.15	11.57
2009	10.01	15.13	25.14
2010	13.65	14.1	27.75
2011	15.53	17.95	33.48
2012	13.09	10.43	23.52
2013	13.33	13.74	27.07
합계	103.16(51.55)	96.95(48.45)	200.11(100)

출처: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 (2016.8.30.).

1991~2014년까지 라오스에 대한 유상원조는 총 1건이며, 총 지원액은 22.70백만 달러이다. 동 기간 동안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는 없으며, 무상원조는 총 2건이고 지원액은 280만 달러이다(<표 2-14> 참조).

〈표 2-14〉 KOICA의 무상원조(라오스, 1991~2014)

(단위: 만 달러)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지원 규모
프로젝트 (2건)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2002~2005	200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2007~2008	80
계			280

출처: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2016.8.30).

1974년 6월에 한국과 라오스는 외교 관계가 개시하였으나, 1975년 라오스의 공산화로 단교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양국의 공식 관계는 1995년 10월 복원되어 다시 정상화되었다. 한국의 ODA 지원 측면에서 볼 때 라오스는 과거에 주요 대상국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10위 내외에 드는 주요 수원국으로 부상하였다.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2009년 들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무상원조는 집행액 기준 2007~2013년까지 연평균 11.96백 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유상원조는 11.81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국무조정실, 2016).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라오스에 대한 지원은 식수 공급 및 위생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보건, 운송 및 저장, 교육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관계부처 합동, 2013). 라오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경향과 비교해 보면, 국제사회의 원조는 무상원조가 89%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무상원조가 51% 수준에 불과하다. 최빈국에 대한 원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상원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KOICA는 1991~2014년 기간 동안 라오스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농촌지역 빈곤 감

소,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등에 총 8,595만 9,000달러를 지원하였다.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2,866만 5,000달러, 보건 2,061만 8,000달러, 공공행정 874만 3,000달러, 농림수산 1,860만 7,000달러, 산업에너지 848만 달러, 긴급구호 29만 2,000달러, 기타 55만 1,000달러 등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가장 많이 지원한 분야는 교육 분야로서 33.0%의 비율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보건(24.0%), 농림수산(22.0%), 공공행정(10.1%) 등의 순이다(<표 2-15> 참조).

〈표 2-15〉 KOICA의 라오스 사업 분야별 지원 현황(1) (1991~2014)

사업 분야	지원액(천 달러)	비율(%)
교육	28,665	33.0
보건	20,618	24.0
공공행정	8,743	10.1
농림수산	18,607	22.0
산업에너지	8,480	10.0
긴급구호	292	0.3
기타	551	0.6
합계	85,959	100

출처: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 (2016.8.30.)

사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물자 지원, 긴급원조, 개발 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의료단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민관협력(NGO)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비중은 프로젝트 사업이 가장 많은 46.0%를 차지하며, 해외봉사단 파견 31.5%, 연수생 초청 12.7% 등의 순이다(<표 2-16> 참조).

〈표 2-16〉 KOICA의 라오스 사업 형태별 지원 현황(2) (1991~2014)

사업 분야	지원액(천 달러)	비율(%)
프로젝트	39,379	46.0
물자 지원	909	1.0
긴급 원조	233	0.3
개발 조사	2,074	2.4
연수생 초청	10,924	12.7
전문가 파견	400	0.5
의료단 파견	181	0.2
해외봉사단 파견	27,150	31.5
NGO	4,709	5.4
합계	85,959.	100

출처: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46.0%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은 이 기간에 총 29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직업훈련원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표 2-17> 참조).

〈표 2-17〉 KOICA의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실적(1991~2014)

사업 형태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지원 규모 (달러)
프로젝트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2002~2005	200만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2007~2008	80만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http://odakorea.go.kr>.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교육 분야 프로젝트는 주로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인 한국의 원조 형태가

라오스의 지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라오스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도움으로 프로젝트 준비 기술적 원조(PPTA: 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PPTA는 정부의 정책 및 전략과 기술, 재정, 경제, 기관, 부문 정책, 안전장치 등과 관련한 ADB의 요구에 부합하여 ADB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해 역량 개발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돕는 것이다. PPTA 계획은 또한 교육스포츠부가 기업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학교 관리, 저소득 가정의 학생을 지원하는 수당 계획 절차 등에 의해 준비된 학교개발계획(SDP: School Development Plan)의 구성 방식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제안된 조정의 범위를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은 또한 기술 및 직업 역량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스포츠부와 고용주, 기업 협회,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진행 중인 직업교육훈련(TVET)들로부터 얻는 교훈은 계획 작업 및 이행 준비에 반영하게 된다(ADB, 2016).

현재 라오스는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16)을 수립하고 있다. 2015년 2월에 발표된 기초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 탈피를 위한 총족, 2015년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에 따른 지역·국제적 통합 강화, 산업화 및 근대화 추진과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 지위 달성을 위한 국민 복지 및 국가의 번영 추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ODA 지원 사업 평가⁹⁾

ODA 지원 사업 선정 시, 라오스의 제 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등 개발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적절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조기관 간 협력이 부족했고, 개발 프로젝트 외부의 지원으로 사업 간 연계나 프로그램화된 지원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라오스 연구 및 컨설턴트 등 현지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조 규모 및 프로젝트 사업 수 등을 고려할 때 원조 규모에 맞는 전문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991~2014년 기간 동안 라오스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성과를 살펴 보면, 방비엥 소수민족학교 건립(2008~2011, 300만 달러),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사업(2010~2012, 110만 달러) 등 직업훈련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라오스의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였다.

KOICA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에 대한 원조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등의 사후평가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9) 각 국가의 ODA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없는 관계로 한국국제협력단이 ODA 사업 수행 후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에 평가를 의뢰해서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였음. 관계부처 합동,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2013~2015’를 요약·정리한 것임.

2. 미얀마 ODA 지원 현황 분석 및 평가

가. 지원 사업 현황 분석

<표 2-18>은 1987~2013년까지 미얀마에 대한 ODA 지원 실적을 설명한 것이다. 동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114.86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68.33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46.53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40.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8〉 유·무상 지원 실적(미얀마, 1987~2013)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무상	유상	총 지원액
1987~1999	4.21	43.34	47.55
2000	0.74	0.1	0.84
2001	0.66	-0.24	0.42
2002	1.61	5.59	7.2
2003	1.52	5.12	6.64
2004	2.24	0.69	2.93
2005	3.66	4.45	8.11
2006	3.53	5	8.53
2007	2.36	-1.86	0.5
2008	6.68	-2.31	4.37
2009	3.96	-2.01	1.95
2010	5.46	-2.21	3.25
2011	7.86	-3.05	4.81
2012	9.04	-3	6.04
2013	14.8	-3.08	11.72
합계	68.33(59.4)	46.53(40.6)	114.86(100)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1991~2014년까지 미얀마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유상원조는 없으며, 무상원조는 그 규모는 3건으로 562.85만 달러이다(<표 2-19> 참조).

〈표 2-19〉 무상원조 지원 실적(미얀마, 1991~2014)

(단위: 만 달러)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지원 규모
프로젝트	미얀마 따가야 지역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2007~2009	196.95
	미얀마 마그웨이 자동차기술훈련원 설립 사업	2010~2012	255.9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CLMV 역량 강화 사업	2010~2012	110
계	3건		562.85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8.20)

OECD 개발센터는 2015년 12월 5일에 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한 OECD 개발전략¹⁰⁾ 이행의 일환으로 개도국 대상 개발협력 컨설팅 사업을 도입하였다. 이는 개도국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정책 입안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 지속가능성 등 국가 개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OECD는 미얀마를 다차원 국가 검토(Dimensional Country Review) 사업의 첫 시범 국가로 선정하여, 2013년 7월 미얀마 경제 전반에 대한 기초 진단을 실시한 제1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5년 1월 심화

10) 변화하고 있는 국제 개발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OECD의 실증적 분석과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 개도국과의 정책 대화 및 지식 공유를 촉진 할 필요가 있음.

분석 및 권고 사항을 담은 제2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차 보고서는 미얀마가 풍부한 천연자원, 노동력, 지리적 입지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주요 제약 요인으로 제도 및 사회적 자본 부족을 제시하였다. 2차 보고서는 경제의 구조적 전환, 교육 및 기술, 자원 개발 이슈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미얀마는 광물, 수자원 등 풍부한 자연자원 및 노동력, 역내 지리적 입지 등 경제 발전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사회적 연결망, 역량 강화, 사회 참여의 열악한 기반이 이러한 우호 조건을 상쇄하고 있다. 미얀마 경제의 구조 변환을 위해서는 인프라, 금융, 인적 자본 등 모든 자본의 급속한 축적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적·사회적 자본의 개선이 긴급하다. 농경제의 비중이 높은 미얀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경제구조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 분야의 광범위한 구조적 변환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 및 연구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 연구 및 개발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하여 양질의 기술 및 직업교육 훈련(TVET)의 제공을 강화하고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나. ODA 지원 사업 평가¹¹⁾

KOICA는 미얀마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개발 과제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개발, 성장 인프라 개발 지원,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인력 양성과 같

1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2015), ‘미얀마 국별 종합평가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

은 4대 중점 지원 분야를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는 개발협력 4대 구상의 사업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의 시범 국가로 1차 보건의료 체계 강화 사업(복지부), 소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6).

미얀마의 따가야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및 마그웨이 정비직업훈련원 사업은 수원국의 공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현지화에 성공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은 학교교육 지원에서 탈피하여 미얀마의 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것은 따가야 직업훈련원이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직업훈련원을 설립한 것이 주요인이다. 1차 사업 후 해당 산업단지의 요구에 따라 주조공과를 추가 지원하여 현지 인력 수요를 충족하였으며, 연간 100여 명의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이 훈련원을 수료한 졸업생은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마그웨이 자동차직업훈련원은 자동차 제조 산업의 특화단지에 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직업훈련원 졸업 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 인력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산학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방글라데시 ODA 지원 현황 분석 및 평가

가. 지원 사업 현황 분석

<표 2-20>은 1987~2013년까지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ODA 지원 실적을 설명한 것이다. 동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383.78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89.14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2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294.64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76.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방글라데시는 유상원조가 무상원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표 2-20〉 ODA 지원 실적(방글라데시, 1987~2013)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무상	유상	총 지원액
1987~1999	6.19	22.75	28.94
2000	0.7	5.72	6.42
2001	0.85	0.02	0.87
2002	1.27	0.81	2.08
2003	1.73	8.34	10.07
2004	2.05	21.46	23.51
2005	2.13	29.81	31.94
2006	4.15	18.04	22.19
2007	8.62	1.38	10
2008	9.45	-1.4	8.05
2009	3.66	9.89	13.55
2010	9.23	45.44	54.67
2011	9.21	70.81	80.02
2012	10.47	36.29	46.76
2013	19.43	25.28	44.71
합계	89.14(23.23)	294.64(76.77)	383.78(100)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8.20.).

방글라데시에 대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유상원조는 총 1건이며, 총 승인액은 39.0백만 달러이다(<표 2-21> 참조).

〈표 2-21〉 유상원조 지원 실적(방글라데시, 1991~2014)

(단위: 백만 달러)

승인연도	사업명	승인액
2009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39.0
계	1건	39.0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8.20.).

방글라데시에 대한 1991~2014년까지 무상원조는 총 3건이며 총 지원액은 980만 달러이다(<표 2-22> 참조).

〈표 2-22〉 무상원조 지원 실적(방글라데시, 1991~2014)

(단위: 만 달러)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지원 규모
프로젝트	IT훈련센터 건립 사업	2003~2004	100
	국가 직업훈련 역량 강화 사업	2007~2009	400
	치타공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2011~2013	480
계	3건		980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8.20.).

한국은 방글라데시에 지난 2010~2014년까지 약 20개 부처·기관에서 총 3억 994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무상원조 사업으로는 동 기간동안 약 6,7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프로젝트 사업(17건)과 개발 컨설팅 사업(1건) 등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 간호전문대학원 설립 사업(2012~2018/1,375만 달러), 안질환 예방 및 치료 역량 강화 사업(2014~2020/845만 달러), 화학산업기술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2013~2016/500만 달러), 치타공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2011~2013/480만 달러), 다카(Dhaka) 지역 중등학교 IT 교육 지원 사업

(2012~2014/353만 달러) 등이다.

유상원조 사업으로는 2010~2014년 동안 약 2억 4,294만 달러가 집행되었다. 이를 통해 상수도, 전력, 통신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표 2-23> 참조).

〈표 2-23〉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지원 추이(2010~2014)

(단위: 백만 달러, 실질가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무상	승인	8.2	16.7	28.4	14.6	-	67.9
	집행	10.1	9.5	10.9	19.4	17.1	67
유상	승인	90.5	73.53	114.5	-	263.77	542.3
	집행	47.15	72.59	38.04	28.69	56.47	242.94
계(집행)		57.25	82.09	48.94	48.09	73.57	309.94

자료: 국무조정실(2016).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 접속일자(2016.9.1.).

2010~2014년 동안 대(對)방글라데시 ODA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운송 및 저장(30.8%) 분야가 가장 많았고, 이어 에너지(19.7%), 교육(17.5%), 통신(14.0%) 분야가 상위를 차지하였다(집행액 기준). <표 2-24>는 2010~2014년까지 방글라데시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지원 현황을 설명한 것이다.

〈표 2-24〉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분야별 지원 현황(2010~2014)

(단위: 백만 달러, 실질가격)

구분	운송 및 저장	에너지	교육	통신	식수 공급 및 위생	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기타
금액	97.71	62.57	55.49	44.39	17.95	11.24	7.69	20.67
비율(%)	30.76	19.69	17.46	13.97	5.65	3.54	2.42	6.51

자료: 국무조정실(2010).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 접속일자(2016.8.20.).

한국은 2010~2014년 동안 기술직업훈련 개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신규 직업훈련 프레임워크(NTVQF)에 기반을 둔 기술훈련의 질적 향상을 국가 차원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훈련교사 자질 향상 및 현대적 기술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교사 및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한 보편적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 참여율 향상이 필요하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중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협력하고 있다. 중등 교육 부문 투자 프로그램은 방글라데시의 중등학교를 좀 더 효율적이고, 평등하며,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직업 프로그램, 교사 훈련, 시험의 개선뿐만 아니라 정보의 활용, 소통 기술도 포함한다. 가난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받고 있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교육에 대한 평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ADB, 2016).

TVET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서 (1) 노동시장에 숙련된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2) 구직자들에게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큰 역할을 한다. 방글라데시의 국가빈곤감소전략(NPRS: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y)은 TVET이 특히 일찍이 학교를 중퇴하고 이미 고용 가능 나이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과 실업 상태나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성인들에게 고용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공식적인 TVET 시스템은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또한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도 능력이 부족하다. 고용주들은 반숙련, 숙련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찾고 있

다. TVET 시스템의 결과물과 고용 부문의 요구는 적어도 세 영역에서 어긋나 있다: (1)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업계 또는 직업, (2) 취득한 역량이 산업체 또는 자영업자의 요구와 맞지 않음, (3) 학생들을 위한 실제적인 경험 기회 부족 등 교육과정에서 실제 체험적인 요소들은 사실상 학습되지 못했다. 다수의 TVET 교사들은 교육학적인 훈련과 실제적인 기술에 부족함이 있고, 산업체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TVET 기관들은 충분한 작업실을 갖추지 못했고, 학습 훈련 자료들과 교실 및 작업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식적인 TVET 시스템은 국가 빈곤 감소 전략의 주요 대상 수혜자에게만 제한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중등학교 수료에서 8학년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면 공식적인 TVET 프로그램 진입이 요구되고, 따라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제외되고 있다. 이것의 주요 고객은 8학년을 마치고, 추가로 학교에 다닐 만한 여유가 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업을 열망하는 젊은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국가전략은 좀 더 시장에 부응하여, 8학년을 마치지 못하여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부문과 비정부조직들이 협력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무엇보다 기간, 교육과정, 학생들의 학업적인 자격과 관련하여 좀 더 유연하게 하는 TVET 시스템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

나. ODA 지원 사업 평가¹²⁾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지원전략은 방글라데시 개발 정책과 수요에

12) 한국수출입은행(2012),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이하에서 기술한 각국의 지원 사업 평가는 최근의 자료를 요약 및 분석한 것임.

대체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비전 2021 중장기 개발전략 및 빈곤퇴치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친화적 성장을 촉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방글라데시 전략’ 등 성장 동력으로서 ICT를 국가전략으로 강조하는 방글라데시 추가 추진 전략에 대응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빈곤퇴치에 대한 기여는 방글라데시의 국가전략상의 목표와 일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된 지원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공적인 ODA 사업 평가의 이면에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 한국 제품 사용을 요구하는 한국 기업들의 구속성 원조, 유·무상원조 간 협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직업훈련원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성공적이었지만 소프트웨어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인프라 구축이 유상원조로, 소프트웨어 지원이 무상원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국내 기관 간에 원조의 분절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원조 간에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

4. 베트남 ODA 지원 현황 분석 및 평가

가. 지원 사업 현황 분석

<표 2-25>는 1987~2013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 실적을 설명한 것이다. 동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992.3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276.2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716.09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72.16%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매년 원조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상원조가 증가하기보다는 유상원조의 증가가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25〉 유·무상 원조 지원 실적(베트남, 1987~2013)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무상	유상	총 지원액
1987~1999	23.87	16.43	40.3
2000	5.35	10.68	16.03
2001	5.35	32.78	38.13
2002	5.85	16.76	22.61
2003	5.69	6.99	12.68
2004	11.69	19.66	31.35
2005	12.25	3.04	15.29
2006	11.9	-1.82	10.08
2007	26.36	-1.69	24.67
2008	13.14	40.08	53.22
2009	22.39	35.14	57.53
2010	32.45	63.59	96.04
2011	30.08	109.41	139.49
2012	33.89	166.43	200.32
2013	35.95	198.61	234.56
합계	276.21(27.84)	716.09(72.16)	992.3(100)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8.20.).

1991~2013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유상원조는 3건이며, 총 승인액은 8.94백만 달러이다(<표 2-26> 참조).

〈표 2-26〉 유상원조 지원 실적(베트남, 1991~2013)

(단위: 백만 달러)

승인연도	사업명	승인액
2008	탕화성 탕화시 직업기술대학 개선 사업	3.00
2009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개선 사업	2.98
2009	꽝빈성 직업전문대학 개선 사업	2.96
계	3건	8.94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8.20).

1991년~2014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무상원조는 총 8건이며, 총 지원액은 2,827만 7,500달러이다(<표 2-27> 참조).

〈표 2-27〉 무상원조 지원 실적(베트남, 1991~2014)

(단위: 만 달러)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지원 규모
베트남 하노이/퀴논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1994~1906	406.48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 1차	1997~2006	502.31
한-베 산업기술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 2차	2006~2008	229.23
베트남 박장성 한-베 기술대학 설립 사업	2010~2014	899.92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구축 역량 강화 사업	2004~2013	128.07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CLMV 역량 강화 사업	2010~2012	162.35
베트남 꽝찌성 직업훈련원 개선 사업	2011~2013	450.25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 사업	2014~2016	49.14
계(8건)	8건	2,827.75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9.20).

1980년대 이전까지는 베트남은 주로 동유럽과 구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소수의 국제기구들로부터 ODA를 지원받았으나, 1986년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ODA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ODA 지원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1차 기본계획 및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중점 ODA 지원 대상국이 되었다. <표 2-28>과 같이 베트남에 대한 ODA는 2004년 3,110백만 달러에서 2013년 6,434백만 달러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8〉 베트남의 ODA 수원 추이(2004~2013)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110	2,799	2,585	3,571	3,980	5,632	4,029	6,361	5,018	6,434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3년 원조 영역별 베트남 ODA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구조 및 서비스로 전체 49.5%(3,184백만 달러), 그다음으로 사회구조가 29.6%(1,905백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2011~2013년간 베트남에 지원된 교육원조 현황을 원조 유형별로 살펴보면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다자원조’가 37.2%이고, 개별 공여국이 베트남에 제공하는 ‘양자원조’가 62.8%이다. 다자원조 중에는 기초교육이 60.5%로 가장 높은 반면에, 양자원조의 경우 중등 이후 교육이 66.9%로 가장 높다.

<표 2-29>는 2011~2013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교육 세부 영역별 ODA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은 기타 사업을 포함하여 366.1백만 달러, 직업교육훈련 116.95백만 달러, 유아교육 106.79백만 달러, 초등·중학교육 101.96백만 달러, 교육 정책 및 경영 관리 58.59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개별 학생 등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사업비성 ODA 중에는 ‘직업교육훈련’ 비율이 가장 높다(<표 2-29> 참조).

〈표 2-29〉 교육 세부 영역별 베트남 원조 현황(2011~2013)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구분	양자	다자	계	
기초교육	초등·중학교육	14.94	87.02	101.96	
	청소년·성인의 기초역량 강화	1.38	0.03	1.41	
	유아교육	6.79	100.0	106.79	
	소계	23.11	187.05	25.4	
중등교육	중등교육	2.5	4.0	6.5	
	직업교육훈련	116.95	0	116.95	
	소계	119.45	4	14.8	
중등 이후 교육	고등교육	장학금	242.35	0	242.35
		기타	78.75	45.00	123.75
		소계	321.10	45.00	366.1
	고급 기술·관리 훈련	28.28	0	28.08	
	소계	349.18	45	47.4	
교육 일반	교육 정책 및 경영 관리	12.18	46.41	58.59	
	교육 시설 및 훈련	13.37	26.51	39.88	
	교사 훈련	4.83	0	4.83	
	교육 연구	0.11	0	0.11	
	소계	30.49	72.92	12.4	
계		62.8	37.2	100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접속일자 2016. 09. 01.).

나. ODA 지원 사업 평가¹³⁾

현재 개발협력 4대 구상 중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에서 여성들의

13) APEC국제교육협력원(2014), ‘교육 분야 ODA 종합평가 연구’를 요약·정리한 것임.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베트남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 사업을 수출입은행의 경제적개발협력자금(EDCF)으로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Strategies Vision’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기관들은 한국 교육 ODA 사업에 대해 한국 대사관, KOICA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경험 전수와 법, 제도, 운영 체계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APEC국제교육협력원, 2014).

현재 EDCF를 통한 5개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역이 5곳으로 분산되어 의사결정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은 경제 개발과 직결되는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어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5. 스리랑카 ODA 지원 현황 분석 및 평가

가. ODA 지원 사업 현황 분석

<표 2-30>은 1987~2013년까지 스리랑카에 대한 ODA 지원 실적을 설명한 것이다. 동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410.45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113.66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2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296.78백만 달러로 전체 72.31%를 차지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2012년까지 매년 총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에는 다소 감소를 보였으며, 무상원조가 증가하기보다는 양

허상 차관인 유상원조의 증가가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다자원조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인데, 양자원조 대 다자원조의 비율이 2008년에 양자 461.9백만 달러, 다자 323.8백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양자 361.0백만 달러, 다자 135.6백만 달러로 크게 바뀌었다. 이와 같이 다자원조의 비율이 줄어든 것은 중국과 인도의 원조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30〉 ODA 지원 실적(스리랑카, 1987~2013)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무상	유상	총 지원액
1987~1999	10.58	37.14	47.72
2000	0.72	9.54	10.26
2001	1.06	9.79	10.85
2002	1.15	9.78	10.93
2003	1.75	15.4	17.15
2004	1.93	3.44	5.37
2005	13.24	19.97	33.21
2006	7.36	15.29	22.65
2007	13.77	19.49	33.26
2008	9.83	10.47	20.3
2009	4.71	10.79	15.5
2010	11.61	31.86	43.47
2011	11.48	31.88	43.36
2012	9.86	41.63	51.49
2013	14.61	30.31	44.93
합계	113.66(27.69)	296.78(72.31)	410.45(100)

자료: OECD(2016c).

스리랑카에 대한 1991~2014년까지 스리랑카에 대한 유상원조는 총 2건이며, 총 승인액은 34.83백만 달러이다(<표 2-31> 참조).

〈표 2-31〉 유상원조 지원 실적(스리랑카, 1991~2014)

승인 연도	사업명	승인액(백만 달러)
2006	니야가마 국립직업훈련원 개선 사업	8.78
2012	Colombo 중앙직업훈련원 및 Gampaha 기술대학 건립 사업	26.05
계	2건	34.83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8.20.).

1991~2014년까지 스리랑카에 대한 무상원조는 총 3건이며, 총 지원액은 795.11만 달러이다(<표 2-32> 참조).

〈표 2-32〉 무상원조 지원 실적(1991~2014)

(단위: 만 달러)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지원 규모
프로젝트	스리랑카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1994~2003	195.86
	스리랑카 자프나 기능대학 기능 개선 사업	2004~2007	299.25
	스리랑카 기능대학(CoT) 및 훈련원(TC) 자동차공과 개선 사업	2013~2015	300
계	3건		795.11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8.20.).

스리랑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순 집행액 기준으로 연평균 6억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양허성 차관인 유상원조의 절대 금액과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무상원조는 2008년 656.02백만 달러 수준에서

2012년 181.02백만 달러로 급감했다. 그 결과, 2012년 유·무상 원조 비율이 36:64로 유상원조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나. ODA 지원 사업 평가¹⁴⁾

KOICA와 EDCF의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서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추진한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를 전반적으로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업별, 유·무상별, 분야별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지원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 측면은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니야가마(Niyagama) 독립 직업훈련원 개선 사업’은 2006년에 88만 달러의 개발 사업 차관 승인이 난 후 3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0년에 완공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 니야가마 시에 위치한 직업훈련원을 최신 시설과 장비, 선진화된 교육과정을 갖춘 모범적인 직업훈련원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 사업이다.

이 직업훈련원은 스리랑카 정부에서 선정한 16개 최우수 직업훈련원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스리랑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복잡도가 매우 높고, 또한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측면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의 경우, 니야가마 직업훈련원 사업 이외에 개별 프로젝트들도 전반적으로 상당한 사업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4) 강인수 외(2012),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국가협력전략-스리랑카’를 요약·정리한 것임.

6. 인도네시아 ODA 지원 현황 분석 및 평가

가. 지원 사업 현황 분석

<표 2-33>은 1987~2013년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ODA 지원 실적을 설명한 것이다. 동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386.65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193.45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5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193.20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49.9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유상원조가 증가하기보다는 무상원조가 다소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33> ODA 지원 실적(인도네시아, 1987~2013)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무상	유상	총 지원
1987~1999	15.19	52.74	67.93
2000	2.02	1.77	3.79
2001	2.04	20.96	23
2002	2.94	11.73	14.67
2003	5.55	24.62	30.17
2004	7.57	9.36	16.93
2005	11.31	7.01	18.32
2006	20.32	-1.42	18.9
2007	16.52	12.26	28.78
2008	10.66	8.28	18.94
2009	14.92	12.84	27.76
2010	19.04	5.4	24.44

<표 계속>

연도	무상	유상	총 지원
2011	17.89	6.4	24.29
2012	23.2	14.03	37.23
2013	24.28	7.22	31.5
합계	193.45(53.03)	193.20(49.97)	386.65(100)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8.10.).

1991~2014년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유상원조는 총 1건이며, 총 승인액은 25.00만 달러이다(<표 2-34> 참조).

〈표 2-34〉 유상원조 지원 실적(인도네시아, 1991~2014)

(단위: 백만 달러)

승인 연도	사업명	승인액
1991	이동식 직업훈련 사업	25.00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8.5.).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상원조는 총 2건이며 총 지원액은 114.46만 달러이다(<표 2-35> 참조).

〈표 2-35〉 KOICA의 무상원조 지원 실적(인도네시아, 1991~2014)

(단위: 만 달러)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지원 규모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1991~1994	105.9
	이동식 직업훈련원(MTU) 지원 사업	1994~1996	8.56
계	2건		114.46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8.30.).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2015년 기간 동안 발굴된 대부분의 사업은 제2차 CPS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집행액 기준으로 지난 5년간(2010~2014년) 약 28개의 부처·기관에서 1억 7,318만 달러 규모의 원조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36> 참조).

〈표 2-36〉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2014)

(단위: 백만 달러 / 총지출, 집행액, 명목가격)

구분	보건	환경 보호	교육	운송/ 저장	통신	농림수 산업	에너지	식수 공급 및 위생	기타
금액	50.88	17.01	16.05	15.63	14.69	10.62	9.612	9.32	27.66
비율 (%)	29	10	9	9	8	6	6	5	16

자료: OECD(2015).

주: OECD 통계 기준상 농어촌개발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은 대부분에 해당.

나. ODA 지원 사업 평가¹⁵⁾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ODA에서 네 번째로 큰 수원국이며, ODA는 총액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거버넌스, 에너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나, 양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 분야 ODA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C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원조 분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대 중점 분야는 공공행정, 경제 인프라, 환경·자원 관리이다.

15)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국가협력전략-인도네시아-결과를 수정·보완하였음.

지원 사업 선정 시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사업을 지원하였으므로,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조기관 간 협력이 부족하였고, 단독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으로 사업 간 연계나 프로그램화된 지원 등은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 측면에서 후속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지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에서 원조 규모 및 프로젝트 사업 수 등을 고려할 때 현지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조 규모에 맞는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연구 및 컨설턴트 등 전문가 그룹이 부족하고, 프로젝트 사업과 프로그램 간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7. 캄보디아 ODA 지원 현황 분석 및 평가

가. ODA 지원 현황 분석

<표 2-37>은 1987~2013년까지 캄보디아에 대한 ODA 지원 실적을 설명한 것이다. 동 기간 동안의 ODA 총 지원액은 396.54백만 달러이고, 이 중 무상원조가 169.27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4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227.27백만 달러로서 전체의 57.31%를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매년 총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상원조가 증가하기보다는 유상원조 증가가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37〉 ODA 지원 실적(캄보디아, 1987~2013)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무상	유상	총 지원액
1987~1999	2.56	-	2.56
2000	0.66	-	0.66
2001	1.13	-	1.13
2002	2.03	20.68	22.71
2003	2.63	8.13	10.76
2004	3.94	19.94	23.88
2005	6.61	11.16	17.77
2006	7.36	6.47	13.83
2007	10.64	24.64	35.28
2008	13.4	21.26	34.66
2009	7.97	9.08	17.05
2010	19.09	18.24	37.33
2011	23.14	39.09	62.23
2012	35.47	20.68	56.15
2013	32.64	27.9	60.54
합계	169.27(42.69)	227.27(57.31)	396.54(100)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9.10.).

1991~2014년까지 캄보디아에 대한 유상원조는 총 1건이며, 총 승인액은 27.7백만 달러(<표 2-38> 참조)이다.

〈표 2-38〉 유상원조 지원 실적(캄보디아, 1991~2014)

(단위: 백만 달러)

승인 연도	사업명	승인액
2002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27.7
계	1건	27.7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9.10.).

1991~2014년까지 캄보디아에 대한 무·유상원조는 총 5건이며, 총 지원액은 745만 달러이다(<표 2-39> 참조).

〈표 2-39〉 무상원조 지원 실적(캄보디아, 1991~2014)

(단위: 만 달러)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지원 규모
프로젝트 (3건)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CLMV 역량 강화 사업	2010~2012	100
	캄보디아 HRD센터 건립 사업	2010~2014	745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 사업	2013~2016	200
개발 컨설팅 (2건)	캄보디아 ICT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012~2014	200
	캄보디아 기술교육고등학교 개발 사업	2013~2015	200
계	5건		745

자료: KOICA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접속일자(2016.9.20.).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캄보디아의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 부문 개발 프로그램(TVETSDP: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Development Program)을 지원하고 있다. 제안된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 부문 개발 프로그램(TVETSDP)은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적인 기술·직업 교육훈련 시스템의 접근성과 연계성, 질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의 주요 초점은 고용주와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대응적인 공식 TVET 시스템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주요 초점은 대기업, 국내외의 직접적인 투자와 함께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s)을 통해 시장 대응적인 공식 TVET 시스템을 달성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개발전략(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개방 지역 노동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이 4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어,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정부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훈련기관으로서의 장기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ODA 지원 사업 평가¹⁶⁾

NPIC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관리하는 고등교육 단계 TVET 기관으로서 학사 과정과 전문대학 과정을 운영하는 캄보디아의 국립 기술 대학이다. NPIC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의 하나로 설립되어 캄보디아 정부가 2008년부터 직업기술교육훈련 발전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및 형식적 TVET 확대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수혜자인 NPIC 졸업생의 취업 효과 및 임금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식·기술·태도 등 졸업생 역량에 대한 고용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수행을 통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TVET 관리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16) 한국수출입은행(2013). ‘캄보디아 직업훈련 건립 사업 영향력 평가보고서’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캄보디아 ODA 지원 종합평가(2011)’ 결과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음.

제3장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3장 |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방법 및 주요 내용

가. 목적

본 조사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총 11개국)의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에 근무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비롯한 한국의 ODA 지원 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지원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연수·교육 이수자 및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한 해당 분야 전문가 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016년 8월 4일~9월 12일까지 5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는 연구진이 제공하는 구조화된 조사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인터넷 설문 조사를 기본으로 응답자의 편의에 따라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자에게 인터넷 설문 조사 페이지를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응답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한 직업교육훈련 전문가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수집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96개이며, 92개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 주요 질문 사항

<표 3-1>은 주요 조사 내용을 공통 질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및 향후 지속 가능성 여부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3-1>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질문 내용
공통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분야의 장기/중기/단기 비전은 무엇인가? • 정부에서 직업교육 ODA 사업의 결과물이나 산출물을 평가하는가? •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을 계획, 집행, 평가하는 데에 한국과 해당국 정부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가? • 최근 3년간 진행된 직업교육훈련 사업 중 인상적인 성과를 낸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며, 성공 요인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수행한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과 비교하여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을 평가한다면 어떠한가?

<표 계속>

구분	질문 내용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이 해당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 협력 정책,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 적합한가? • 한국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일정(시기), 예산 규모가 해당국의 요구에 적절한가? • 한국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수행 절차(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 수행 기간, 관련 인력 교육,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가 적절한가?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목표가 달성된 분야와 미흡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범례: 인프라 구축, 정책 자문, 담당자 교육, 한국 방문 연수 등] • 한국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예산, 수행 기간의 측면에서 목표 달성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은 다음 사항들 중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범례: 관련 제도 개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 시민들의 교육 생활 개선, 환경 및 자연보호, 양성평등 및 여성 활동 증진, 인권 신장, 한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 한국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잠재적 파급효과가 사업 시작 시에 고려되었는가? 그 내용이 한국과 사전에 논의되었는가?
향후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종료 후에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예산, 정책 지원 등 필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한국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제2절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국적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국적별 조사 대상 표본 수 총 474명 중 19.4%인 92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총 92명의 국적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22명(23.9%), ‘베트남’ 12명(13.0%), ‘인도네시아’ 11명(12.0%) 및 ‘필리핀’ 11명(12.0%), ‘미얀마’ 10명(10.9%) 순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표 3-2〉 응답자 및 표본 국적

국가명	응답		표본	
	응답자 수	비율(%)	표본 수	비율(%)
네팔	6	6.5	35	7.4
라오스	5	5.4	54	11.4
몽골	2	2.2	43	9.1
미얀마	10	10.9	22	4.6
방글라데시	3	3.3	33	7.0
베트남	12	13.0	53	11.2
스리랑카	7	7.6	56	11.8
인도네시아	11	12.0	60	12.7
캄보디아	22	23.9	64	13.5
파키스탄	3	3.3	12	2.5
필리핀	11	12.0	22	4.6
미기재	-	-	20	4.2
합계	92	100.0	474	100

2. ODA 사업 경험 및 인식 수준

가. ODA 사업 참여 경험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한국 ODA 사업에 응답자 본인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예’(53.3%)가 ‘아니요’(46.7%)보다 6.6% 높게 나타났다(<표 3-3> 참조).

〈표 3-3〉 한국 ODA 사업 참여 경험

국가명	응답 수	비율(%)
예	49	53.3
아니요	43	46.7
합계	92	100.0

국가별 참여 사업명은 <표 3-4>와 같다.

〈표 3-4〉 참여 ODA 사업 명칭

국가명	비율(%)
네팔	Technical cooperation and ODA loan
	UNESCO/KOICA Cosponsored Fellowship Programme
미얀마	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2016)
방글라데시	Master of international studies-KOICA-SNU
	Training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for Sustainable National Competitivenes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for Sustainable National Competitiveness
베트남	Capacity Building of SMEs
스리랑카	Global Saemaul Undong (Practical Course)
	Masters in Korean experien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인도네시아	Assets management plan course
	E-Government; Benchmarking On-Nara System
	KOICA - National Assets Management Plan Course
	Master Program in Korean's Experienc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National Assets Management Plan Course
Partnership Program for Diplomats	

<표 계속>

국가명	비율(%)
캄보디아	Capacity Building Program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lanning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Database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for IT Staffs of CRDB/CDC Cambodia
	GPEDC Accelerated Training Program by KOICA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KOICA - SNU Capacity Building of Public Administration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at High School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Technical Assistance
파키스탄	Fostering Rural Leaders and Saemual Model in Pakistan
필리핀	Basic Training for Cyber Crimes by KOICA
	Construction of the Korean-Philippines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Davao City, Philippines (KORPHIL)
	KOICA Scholarship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HRD Center in the Philippines
	Training on Livestock Traceability for Meat Products

나. 한국 ODA 사업 인지도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한국 ODA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고 있음’(34.8%), ‘매우 잘 알고 있음’(31.5%), ‘보통’(23.9%) 순으로 응답자들은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한국 ODA 사업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표 3-5〉 한국 ODA 사업 인지도

국가명	응답 수	비율(%)
전혀 모름	3	3.3
잘 모름	6	6.5
보통	22	23.9
잘 알고 있음	32	34.8
매우 잘 알고 있음	29	31.5
합계	92	100.0

응답자의 국적에 따른 한국 ODA 사업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6> 같다. ‘라오스’(평균 4.40점), ‘파키스탄’(평균 4.33점), ‘인도네시아’(평균 4.27점) 순으로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몽골’(평균 3.00점), ‘필리핀’(평균 3.45점), ‘베트남’(평균 3.50점)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3-6〉 응답자 국적별 한국 ODA 사업 인지도

국가명	응답 수	평균
네팔	6	4.00
라오스	5	4.40
몽골	2	3.00
미얀마	10	3.70
방글라데시	3	4.00
베트남	12	3.50
스리랑카	7	3.57
인도네시아	11	4.27
캄보디아	22	4.05
파키스탄	3	4.33
필리핀	11	3.45
합계	92	3.86

3. ODA 사업 만족도 및 필요성

가. 한국 ODA 사업 만족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10). 응답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러함’(43.7%), ‘매우 그러함’(35.6%), ‘보통’(1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참조).

<표 3-7> 한국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 만족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합계	평균
응답 수 (비율,%)	1 (1.1)	2 (2.3)	15 (17.2)	38 (43.7)	31 (35.6)	87 (100.0)	(4.10)

응답자의 국적에 따른 한국 ODA 사업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라오스’(평균 4.40점), ‘파키스탄’(평균 4.33점), ‘인도네시아’(평균 4.27점) 순으로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몽골’(평균 3.00점), ‘필리핀’(평균 3.45점), ‘베트남’(평균 3.50점)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3-8〉 응답자 국적별 한국 ODA 사업 만족도

국가명	응답 수	평균
네팔	6	4.00
라오스	5	4.40
몽골	2	3.00
미얀마	10	3.70
방글라데시	3	4.00
베트남	12	3.50
스리랑카	7	3.57
인도네시아	11	4.27
캄보디아	22	4.05
파키스탄	3	4.33
필리핀	11	3.45
합계	92	3.86

ODA 사업에 만족하는 주요 이유로는 ‘교강사, 프로그램, 시설의 우수성’, ‘충분하고 합리적인 재무적 지원’,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의 공유’, ‘단기간에 성과 창출 가능’, ‘지원국의 수요에 맞춘 일관적인 정책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나. 한국 ODA 사업 목표 달성 분야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 제도/정책 자문’(64.8%),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 개발’(46.6%), ‘인프라 구축(직업교육훈련기관 건립, 기자재 설비 등 인프라 지원)’(42.0%) 순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표 3-9〉 한국 ODA 사업 목표 달성 분야

목표 달성 분야	응답 수	비율(%)
직업훈련 제도/정책 자문	57	64.8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 개발	41	46.6
인프라 구축(직업교육훈련기관 건립, 기자재 설비 등 인프라 지원)	37	42.0
담당자 교육 및 연수	36	40.9
노동시장 분석	35	39.8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	34	38.6
자격제도 구축	28	31.8
직업교육훈련 평가	19	21.6

주: 중복 응답

다. ODA 필요 분야

응답자 국가에 분야별로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3-10>과 같다. ‘직업교육훈련 제도/정책 자문’, ‘노동시장 분석’,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 개발’, ‘직업교육훈련 평가’, ‘직업교육훈련기관 건립’, ‘기자재·설비 등 인프라 지원’ 분야는 ‘필요함’이 각각 48.1%, 43.2%, 46.1%, 50.7%, 46.8%, 56.6%, 50.0%, 43.2%, ‘매우 필요함’이 각각 33.3%, 38.3%, 36.8%, 42.7%, 36.4%, 32.9%, 28.2%, 3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제도 구축’ 분야는 ‘매우 필요함’ 50.6%, ‘필요함’ 38.3% 순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격제도 구축’(4.33점),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4.31점), ‘직업교육훈련 평가’(4.20점) 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ODA 필요 분야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평균
직업교육훈련 제도/정책 자문	응답 수 비율(%)	3 (3.7)	3 (3.7)	9 (11.1)	39 (48.1)	27 (33.3)	81 (100.0)	(4.04)
노동시장 분석	응답 수 비율(%)	2 (2.5)	1 (1.2)	12 (14.8)	35 (43.2)	31 (38.3)	81 (100.0)	(4.14)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응답 수 비율(%)	1 (1.3)	1 (1.3)	11 (14.5)	35 (46.1)	28 (36.8)	76 (100.0)	(4.16)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	응답 수 비율(%)	2 (2.7)	0 (0.0)	3 (4.0)	38 (50.7)	32 (42.7)	75 (100.0)	(4.31)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 개발	응답 수 비율(%)	1 (1.3)	1 (1.3)	11 (14.3)	36 (46.8)	28 (36.4)	77 (100.0)	(4.16)
직업교육훈련 평가	응답 수 비율(%)	0 (0.0)	2 (2.6)	6 (7.9)	43 (56.6)	25 (32.9)	76 (100.0)	(4.20)
직업교육훈련 기관 건립	응답 수 비율(%)	3 (3.8)	1 (1.3)	13 (16.7)	39 (50.0)	22 (28.2)	78 (100.0)	(3.97)
기자재·설비 등 인프라 지원	응답 수 비율(%)	5 6.2	1 1.2	9 11.1	35 43.2	31 38.3	81 100.0	(4.06)
자격제도 구축	응답 수 비율(%)	2 2.5	1 1.2	6 7.4	31 38.3	41 50.6	81 100.0	(4.33)

응답자 국적에 따라 분야별 ODA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직업교육훈련 제도/정책 자문 분야에 대한 필요 정도는 ‘네팔’(평균 4.67점)이 가장 높았으며, ‘라오스’(평균 4.33점), ‘베트남’(평균 4.33점), ‘필리핀’(평균 4.33점)이 동일하게 높았다. 노동시장 분석 분야에 대한 필요 정도는 ‘몽골’(평균 5.00점), ‘네팔’(평균 4.67점), ‘라오스’(평균 4.33점) 및 ‘베트남’(각각 평균 4.33점) 순으로 높았다.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분야에 대한 필요 정도는 ‘네팔’(평균 4.80점), ‘미얀마’(평균 4.56점) 순으로 높았다.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 분

야에 대한 필요 정도는 ‘네팔’(평균 4.80점), ‘스리랑카’(평균 4.60점), ‘라오스’(평균 4.50점) 및 ‘파키스탄’(평균 4.50점) 순으로 높았다.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 개발 분야에 대한 필요 정도는 ‘네팔’(평균 4.67점)이 가장 높았으며, ‘방글라데시’(평균 4.50점) 및 ‘파키스탄’(평균 4.50점), ‘필리핀’(평균 4.50점)이 동일하게 높았다. 직업교육훈련 평가 분야에 대한 필요 정도는 ‘몽골’(평균 5.00점), ‘네팔’(평균 4.80점), ‘라오스’(평균 4.50점) 순으로 높았다. 직업교육훈련기관 건립 분야에 대한 필요 정도는 ‘라오스’(평균 4.75점), ‘네팔’(평균 4.60점), ‘스리랑카’(평균 4.40점) 순으로 높았다. 기자재, 설비 등 인프라 지원 분야에 대한 필요 정도는 ‘네팔’(평균 4.80점), ‘라오스’(평균 4.75점), ‘몽골’(평균 4.50점) 및 ‘파키스탄’(평균 4.50점) 순으로 높았다. 자격제도 구축 분야에 대한 필요 정도는 ‘몽골’(평균 5.00점), ‘라오스’(평균 4.75점), ‘네팔’(평균 4.67점) 순으로 높았다.

〈표 3-11〉 응답자 국적별 ODA 필요 분야

국적	직업교육 훈련 제도/ 정책 자문	노동 시장 분석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개선	직업교육 훈련 교사 양성	직업교육 훈련 교육과정 개발	직업교육 훈련 평가	직업교육 훈련 기관 건립	기자재, 설비 등 인프라 지원	자격 제도 구축
네팔	4.67	4.67	4.80	4.80	4.67	4.80	4.60	4.80	4.67
라오스	4.33	4.33	4.33	4.50	3.80	4.50	4.75	4.75	4.75
몽골	4.00	5.00	4.50	4.00	4.00	5.00	4.00	4.50	5.00
미얀마	3.89	4.10	4.56	4.13	4.00	4.00	4.13	3.78	4.50
방글라데시	4.00	4.00	4.50	4.00	4.50	4.00	2.50	4.00	4.00
베트남	4.33	4.33	4.25	4.42	4.25	4.09	3.92	4.08	4.42

<표 계속>

국적	직업교육 훈련 제도/ 정책 자문	노동 시장 분석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개선	직업교육 훈련 교사 양성	직업교육 훈련 교육과정 개발	직업교육 훈련 평가	직업교육 훈련 기관 건립	기자재, 설비 등 인프라 지원	자격 제도 구축
스리랑카	3.83	4.20	3.83	4.60	4.20	4.20	4.40	3.83	4.40
인도네시아	3.70	3.80	3.56	4.20	3.56	4.10	3.75	3.88	4.11
캄보디아	3.80	3.95	4.06	4.17	4.17	4.06	3.90	4.14	4.10
파키스탄	4.00	4.00	4.50	4.50	4.50	4.00	4.00	4.50	4.50
필리핀	4.33	4.10	4.00	4.25	4.50	4.33	3.67	3.64	4.20
평균	4.04	4.14	4.16	4.31	4.16	4.20	3.97	4.06	4.33

4. 한국의 ODA 사업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가. 한국 ODA 사업의 문제점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하여 3순위까지 알아본 결과는 <표 3-12>와 같다. 1순위 응답으로는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27.1%), ‘낮은 지원 규모(액수)’(17.6%) 순으로 높았고, 2순위 응답으로는 ‘중장기 지원 계획 미흡(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22.9%), ‘낮은 지원 규모(액수)’(18.1%) 및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18.1%) 순으로 높았으며, 3순위 응답으로는 ‘중장기 지원 계획 미흡(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25.6%), ‘낮은 지원 규모(액수)’(23.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연수생들의 선정과 교육이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지원 기간의 제한’, ‘아세안(ASEAN) 국가와의 협력 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3-12〉 한국 ODA 사업의 문제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낮은 지원 규모(액수)	15	17.6	15	18.1	18	23.1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	23	27.1	15	18.1	9	11.5
중장기 지원 계획 미흡 (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	13	15.3	19	22.9	20	25.6
대상국 조사·분석 미흡으로 현지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	4	4.7	7	8.4	4	5.1
사후관리 부족	0	0.0	3	3.6	1	1.3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평가시스템 부재	5	5.9	8	9.6	8	10.3
시설물 및 기자재 등 하드웨어(물적 협력 수단) 중심의 지원	7	8.2	4	4.8	6	7.7
참여기관 간/민간기구와의 협력체계 미흡	13	15.3	7	8.4	8	10.3
사전조정 기능 결여에 따른 여러 기관의 사업 중복 지원	3	3.5	3	3.6	2	2.6
기타	2	2.4	2	2.4	2	2.6
합계	85	100.0	83	100.0	78	100.0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하여 1~3순위까지 중복 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중장기 지원 계획 미흡(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60.5%), ‘낮은 지원 규모(액수)’(55.8%),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54.7%) 순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조).

〈표 3-13〉 한국 ODA 사업의 문제점(1+2+3순위 종합)

목표 달성 분야	응답 수	비율(%)
중장기 지원 계획 미흡 (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	52	60.5
낮은 지원 규모(액수)	48	55.8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	47	54.7
참여기관 간/민간기구와의 협력체제 미흡	28	32.6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평가시스템 부재	21	24.4
시설물 및 기자재 등 하드웨어 (물적 협력수단) 중심의 지원	17	19.8
대상국 조사·분석 미흡으로 현지 실정에 적합 하지 않은 지원	15	17.4
사전조정 기능 결여에 따른 여러 기관의 사업 중복 지원	8	9.3
기타	6	7.0
사후관리 부족	4	4.7

직업교육훈련 분야 한국 ODA 사업 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 생각하는 ODA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4> 참조).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장기 지원 계획 미흡(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63.8%),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59.6%), ‘낮은 지원 규모(액수)’(55.3%) 순이며,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중장기 지원 계획 미흡(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56.4%)과 ‘낮은 지원 규모(액수)’(56.4%)가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48.7%)과 ‘참여기관 간/민간기구와의 협력체제 미흡’(48.7%)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ODA 사업 참여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중장기 지원 계획 미흡(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 및 ‘낮은 지원 규모(액수)’ 등이 문제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3-14> 참여 경험에 따른 한국 ODA 사업 목표 달성 분야

순 위	참여 경험 있음		참여 경험 없음	
	목표 달성 분야	응답 수 (비율, %)	목표 달성 분야	응답 수 (비율, %)
1	증장기 지원 계획 미흡(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	30 (63.8)	증장기 지원 계획 미흡(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	22 (56.4)
2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	28 (59.6)	낮은 지원 규모(액수)	22 (56.4)
3	낮은 지원 규모(액수)	26 (55.3)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부족	19 (48.7)
4	시설물 및 기자재 등 하드웨어 (물적 협력수단) 중심의 지원	14 (29.8)	참여기관 간/민간기구와의 협력체제 미흡	19 (48.7)
5	참여기관 간/민간기구와의 협력체제 미흡	9 (19.1)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평가시스템 부재	13 (33.3)
6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평가시스템 부재	8 (17.0)	대상국 조사·분석 미흡으로 현지 실정과 적합하지 않는 지원	8 (20.5)
7	대상국 조사·분석 미흡으로 현지 실정과 적합하지 않는 지원	7 (14.9)	시설물 및 기자재 등 하드웨어 (물적 협력수단) 중심의 지원	3 (7.7)
8	사전조정 기능 결여에 따른 여러 기관의 사업 중복 지원	6 (12.8)	사전조정 기능 결여에 따른 여러 기관의 사업 중복 지원	2 (5.1)
9	기타	5 (10.6)	사후관리 부족	2 (5.1)
10	사후관리 부족	2 (4.3)	기타	1 (2.6)

주: 중복 응답.

나. ODA 사업 수행의 적절성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지원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3-15>와 같다. ‘투입된 예산

규모’,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영역은 ‘그리함’(각각 52.6%, 40.0%, 46.9%), ‘매우 그리함’(각각 23.1%, 28.8%, 27.2%) 순이었고, ‘사전 타당성 조사’와 ‘사업 수행 기간’ 영역은 ‘그리함’(각각 48.7%, 51.3%), ‘보통’(각각 24.4%, 26.3%) 순이었으며, ‘투입 인력의 전문성’과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영역은 ‘그리함’(각각 44.0%, 42.3%)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매우 그리함’ (각각 24.0%, 25.6%)과 ‘보통’(각각 24.0%, 25.6%)이 동일하게 높았다.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투입된 예산 규모’(3.91점), ‘모니터링’(3.89점),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3.85점) 영역 순으로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3-15〉 ODA 지원 사업 수행의 적절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리함	매우 그리함	합계	평균
투입된 예산 규모	응답 수	1	4	14	41	18	78	(3.91)
	비율(%)	(1.3)	(5.1)	(17.9)	(52.6)	(23.1)	(100.0)	
사전 타당성 조사	응답 수	3	4	19	38	14	78	(3.72)
	비율(%)	(3.8)	(5.1)	(24.4)	(48.7)	(17.9)	(100.0)	
사업 수행 기간	응답 수	1	4	21	41	13	80	(3.76)
	비율(%)	(1.3)	(5.0)	(26.3)	(51.3)	(16.3)	(100.0)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응답 수	3	6	16	32	23	80	(3.83)
	비율(%)	(3.8)	(7.5)	(20.0)	(40.0)	(28.8)	(100.0)	
투입 인력의 전문성	응답 수	0	6	18	33	18	75	(3.84)
	비율(%)	(0.0)	(8.0)	(24.0)	(44.0)	(24.0)	(100.0)	
모니터링	응답 수	3	4	14	38	22	81	(3.89)
	비율(%)	(3.7)	(4.9)	(17.3)	(46.9)	(27.2)	(100.0)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응답 수	2	3	20	33	20	78	(3.85)
	비율(%)	(2.6)	(3.8)	(25.6)	(42.3)	(25.6)	(100.0)	

응답자 국적에 따라 ODA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6>과 같다. 투입된 예산 규모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파키스탄’(평균 5.00점), ‘방글라데시’(평균 4.50점), ‘캄보디아’(평균 4.18점) 순으로 높았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방글라데시’(평균 5.00점) 및 ‘파키스탄’(평균 5.00점), ‘라오스’(평균 4.25점) 순으로 높았다. 사업 수행 기간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파키스탄’(평균 5.00점), ‘베트남’(평균 4.20점), ‘몽골’(평균 4.00점) 및 ‘방글라데시’(평균 4.00점) 순으로 높았다.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방글라데시’(평균 5.00점) 및 ‘파키스탄’(평균 5.00점), ‘베트남’(평균 4.11점) 순으로 높았다. 투입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방글라데시’(평균 5.00점) 및 ‘파키스탄’(평균 5.00점), ‘네팔’(평균 4.33점) 순으로 높았다.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방글라데시’(평균 5.00점) 및 ‘파키스탄’(평균 5.00점), ‘라오스’(평균 4.25점) 순으로 높았다.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방글라데시’(평균 5.00점) 및 ‘파키스탄’(평균 5.00점), ‘미얀마’(평균 4.30점) 순으로 높았다.

〈표 3-16〉 응답자 국적별 ODA 지원 사업 수행의 적절성

국적	투입된 예산 규모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 수행 기간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투입 인력의 전문성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네팔	4.00	3.33	3.83	4.00	4.33	3.83	3.40
라오스	4.00	4.25	3.80	4.00	4.00	4.25	4.25
몽골	4.00	4.00	4.00	4.00	4.00	4.00	4.00
미얀마	3.70	3.80	3.70	4.00	3.80	4.00	4.30
방글라데시	4.50	5.00	4.00	5.00	5.00	5.00	5.00
베트남	4.00	4.10	4.20	4.11	4.10	4.20	4.00
스리랑카	3.67	3.60	3.60	3.17	3.40	4.20	3.60
인도네시아	3.40	3.56	3.18	3.73	3.67	3.78	3.40
캄보디아	4.18	3.45	3.75	3.65	3.61	3.59	3.80
파키스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필리핀	3.90	3.56	3.88	3.56	3.63	3.60	3.56
합계	3.91	3.72	3.76	3.83	3.84	3.89	3.85

다. ODA 사업 개선 필요 사항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지원 사업의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아본 결과는 <표 3-17>과 같다. ‘중장기 계획 수립’, ‘대상국 관련 법·제도 제정’,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지원분야 선별’, ‘현지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인력 수요공급, 노동시장 분석’, ‘직업교육훈련 표준 사업모델 구축’, ‘전문가 현지 상주 활동 강화’는 ‘매우 필요함’(각각 50.0%, 36.7%, 46.3%, 46.9%, 48.8%, 40.0%, 42.5%), ‘필요함’(각각 41.7%, 34.2%, 33.8%, 33.3%, 31.7%,

36.3%, 38.8%) 순이었고, ‘지원 규모의 확대’, ‘사업 기획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사업 콘텐츠의 차별화’,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 지원’은 ‘필요함’(각각 41.3%, 46.3%, 42.1%, 44.9%, 45.6%), ‘매우 필요함’(각각 36.3%, 36.3%, 34.2%, 33.3%, 34.2%) 순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장기 계획 수립’(4.35점), ‘인력 수요공급, 노동시장 분석’(4.26점),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지원 분야 선별’(4.21점) 영역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3-17> 한국의 ODA 지원 사업 개선 필요 사항

구분		전혀 필요 없음 1	필요 없음 2	보통 3	필요함 4	매우 필요함 5	합계	평균 (5점 척도)
중장기 계획 수립	응답 수 비율(%)	3 (3.6)	0 (0.0)	4 (4.8)	35 (41.7)	42 (50.0)	84 (100.0)	(4.35)
대상국 관련 법·제도 제정	응답 수 비율(%)	2 (2.5)	3 (3.8)	18 (22.8)	27 (34.2)	29 (36.7)	79 (100.0)	(3.99)
지원 규모의 확대	응답 수 비율(%)	1 (1.3)	2 (2.5)	15 (18.8)	33 (41.3)	29 (36.3)	80 (100.0)	(4.09)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지원 분야 선별	응답 수 비율(%)	2 (2.5)	0 (0.0)	14 (17.5)	27 (33.8)	37 (46.3)	80 (100.0)	(4.21)
현지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응답 수 비율(%)	3 (3.7)	1 (1.2)	12 (14.8)	27 (33.3)	38 (46.9)	81 (100.0)	(4.19)
인력 수요공급, 노동시장 분석	응답 수 비율(%)	1 (1.2)	1 (1.2)	14 (17.1)	26 (31.7)	40 (48.8)	82 (100.0)	(4.26)
사업 기획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응답 수 비율(%)	0 (0.0)	1 (1.3)	13 (16.3)	37 (46.3)	29 (36.3)	80 (100.0)	(4.18)

<표 계속>

구분		전혀 필요 없음 1	필요 없음 2	보통 3	필요함 4	매우 필요함 5	합계	평균 (5점 척도)
직업교육훈련 표준 사업 모델 구축	응답 수 비율(%)	1 (1.3)	2 (2.5)	16 (20.0)	29 (36.3)	32 (40.0)	80 (100.0)	(4.11)
사업 콘텐츠의 차별화	응답 수 비율(%)	1 (1.3)	3 (3.9)	14 (18.4)	32 (42.1)	26 (34.2)	76 (100.0)	(4.04)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응답 수 비율(%)	1 (1.3)	0 (0.0)	16 (20.5)	35 (44.9)	26 (33.3)	78 (100.0)	(4.09)
전문가 현지 상주 활동 강화	응답 수 비율(%)	2 (2.5)	0 (0.0)	13 (16.3)	31 (38.8)	34 (42.5)	80 (100.0)	(4.19)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 지원	응답 수 비율(%)	1 (1.3)	2 (2.5)	13 (16.5)	36 (45.6)	27 (34.2)	79 (100.0)	(4.09)

응답자 국적에 따라 ODA 지원 사업의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18>과 같다. 중장기 계획 수립 부문 필요도는 ‘방글라데시’(평균 5.00점) 및 ‘인도네시아’(평균 5.00점), ‘네팔’(평균 4.67점) 순으로 높았다. 대상국 관련 법제도 제정 부문 필요도는 ‘네팔’(평균 4.67점), ‘미얀마’(평균 4.50점) 및 ‘방글라데시’(평균 4.50점) 순으로 높았다. 지원 규모의 확대 부문 필요도는 ‘네팔’(평균 4.67점), ‘방글라데시’(평균 4.50점) 및 ‘스리랑카’(평균 4.50점) 순으로 높았다.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지원 분야 선별 부문 필요도는 ‘네팔’(평균 5.00점) 및 ‘인도네시아’(평균 5.00점), ‘스리랑카’, (평균 4.60점) 순으로 높았다. 현지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부문 필요도는 ‘스리랑카’(평균 4.80점), ‘네팔’(평균 4.67점), ‘인도네시아’(평균 4.50점) 순으로 높았다. 인력 수요공급, 노동시장 분석 부문 필요도는 ‘네팔’(평균 5.00점) 및 ‘방글라데시’(평균 5.00점), ‘스

리랑카’(평균 4.80점) 순으로 높았다. 사업기획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부문 필요도는 ‘네팔’(평균 5.00점) 및 ‘인도네시아’(평균 5.00점), ‘방글라데시’(평균 4.50점) 순으로 높았다. 직업교육훈련 표준사업 모델 구축 부문 필요도는 ‘네팔’(평균 5.00점) 및 ‘인도네시아’(평균 5.00점), ‘캄보디아’(평균 4.75점) 순으로 높았다. 사업 콘텐츠의 차별화 부문 필요도는 ‘네팔’(평균 4.67점), ‘캄보디아’(평균 4.57점), ‘방글라데시’(평균 4.50점) 순으로 높았다.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부문 필요도는 ‘방글라데시’(평균 5.00점), ‘네팔’(평균 4.67점), ‘인도네시아’(평균 4.50점) 순으로 높았다. 전문가 현지 상주 활동 강화 부문 필요도는 ‘방글라데시’(평균 5.00점), ‘네팔’(평균 4.67점), ‘인도네시아’(평균 4.55점)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 국적에 따라 ODA 지원 사업의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면 ‘중장기 계획 수립’이 4.3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인력수요공급, 노동시장 분석’ 4.26,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지원 분야 선별’ 4.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8〉 응답자 국적에 따른 ODA 개선 필요 사항

국적	중장기 계획 수립	대상국 관련 법·제도 제정	지원규모 의 확대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지원 분야 선별	현지산업 과의 연계성 강화	인력 수요공급, 노동시장 분석	사업기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직업교육 훈련 표준사업 모델 구축	사업 콘텐츠의 차별화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전문가 현직 상주 활동 강화
네팔	4.67	4.67	4.67	5.00	4.67	5.00	5.00	5.00	4.67	4.67	4.67
라오스	4.37	3.72	3.89	3.70	4.16	4.10	4.00	3.95	3.89	3.89	3.95
몽골	4.09	3.78	3.36	4.33	4.00	3.44	3.78	3.56	3.56	3.89	3.78
미얀마	4.25	4.50	4.25	4.50	4.25	4.25	4.25	4.25	3.75	4.00	4.00
방글라데시	5.00	4.50	4.50	4.50	4.00	5.00	4.50	4.50	4.50	5.00	4.50
베트남	4.30	3.90	4.10	4.10	3.80	3.80	4.00	3.80	3.80	3.90	4.00
스리랑카	4.50	4.67	4.50	4.60	4.80	4.80	4.20	4.40	4.50	4.20	4.80
인도네시아	5.00	4.00	4.00	5.00	4.50	4.50	5.00	5.00	4.50	4.50	4.00
캄보디아	4.20	3.89	4.43	4.33	4.33	4.67	4.67	4.75	4.57	4.29	4.22
파키스탄	4.14	4.00	4.50	4.50	4.00	4.33	3.83	3.83	3.67	4.17	4.50
필리핀	4.50	3.90	4.20	4.27	4.27	4.58	4.25	4.17	4.36	4.18	4.55
평균	4.35	3.99	4.09	4.21	4.19	4.26	4.18	4.11	4.04	4.09	4.19

라. 제안 사항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ODA 사업 추진 및 수행을 위해 한국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파악한 결과는 <표 3-19>와 같다.

<표 3-19> ODA 사업 관련 제안 사항

항목	내용
ODA 사업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 개별 프로젝트 예산 확대 • 현지 교육기관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공공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대상국과의 협력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국의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 대상국의 수요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수행 • 정책 개선을 위한 지원 대상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훈련 모델 개발 •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 수행 •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리인과의 협력 • 지원 대상국의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계한 프로젝트 진행
사후관리,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수요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 • 지원 대상국의 산업정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 프로그램의 성과 및 제약에 대한 현지 파트너와의 공유 • 장기적 관점에서 차후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확보
훈련 프로그램의 현실적이고 효율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적 분야의 교육에 집중 • 교·강사의 우수성 확보 • 프로그램에 적합한 훈련생 선발 • 한국 초빙 교육 기간 확대
ODA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확대 • VET의 경제발전에 공헌 홍보 • 지원 대상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고려한 홍보와 전파
지원 대상에 대한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에 대한 투명한 선정과정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수원국의 심층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서 수원국은 현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지화된 프로그램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수원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DA가 효율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원국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하는 수요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제기한 ODA의 문제점으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의 부족함을 들고 있다.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의 미흡함은 ODA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고의 낭비와 국가 이미지 실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중장기 공적개발원조 사업 계획의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지원 프로젝트 수행 실태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

적된 것이 ‘중장기 ODA 계획 수립’의 미비이다. 단기적인 일회성 원조는 수혜국의 중장기적 국가 발전 및 지원 사업의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원조 사업의 성과조차 퇴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원국의 자체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DA 지원전략을 MDGs, 부산선언, OECD/DAC의 권고 사항, ODA 선진화 방안 등에 기초해서,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이와 같은 정책에서 라오스는 개발협력 4대 구상의 시범 국가로 보건·역량 강화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보건 여건 개선 및 독립 상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래 역량 증진 사업으로 미용·봉제 등 분야별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대학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공적개발원조 사업 프로그램, 연수, 컨설팅 분야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ODA와 관련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연수, 컨설팅 전문가 및 사업 평가 전문가 등을 적극적으로 양성·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문가 양성은 정규 대학에서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ODA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ODA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면담조사 분석

제1절 면담조사 개요

제2절 면담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4장 |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면담조사 분석

제1절 면담조사 개요

1. 면담조사 목적

면담의 목적은 아시아 국가 대상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ODA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 사안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면담 기간은 2016년 8월 말~9월 초까지였다. 주요 면담 대상은 주로 연구의 대상국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다른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ODA 전문가를 포함하였다. 또한 국내 ODA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OICA, UNESCO 한국위원회의 전문가와 정부부처 공무원, 면담 기간 동안 본원을 방문한 외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진이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다.

2. 면담조사 항목

면담조사 항목은 <표 4-1>과 같다.

<표 4-1> 면담조사 항목

면담조사 항목
○ VET 분야 한국의 ODA 정책 사업의 특징 - 공공 부문의 ODA와 NGO 등 민간 부문의 ODA - 수원국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의 VET ODA 사업의 특성과 보완책
○ VET 분야 선진국의 ODA 사업 동향과 특성 - 정부의 예산 규모 현황과 향후 증감 추세 - ODA 사업 수행 기구와 조직 현황
○ 수원국 측의 VET 중장기 계획과 한국의 ODA 사업과의 일치성 - 양 정부의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
○ ODA 사업에 대한 수원국 측의 요청 사항 - ODA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요청 사항 분석

3. 면담 대상자 및 기관

<표 4-2>는 면담 대상자 및 면담 기관을 설명한 것이다.

<표 4-2> 면담 대상자 및 면담 기관

면담자 면담 기관명	직위나 직책	비고
UNESCO 한국위원회	국제교류협력 담당	
KDI 정책대학원	KSP 담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프로젝트 수행	

<표 계속>

면담자 면담 기관명	직위나 직책	비고
한국교육개발원	ODA 연수 담당	
Ministry of Civil Service, Cambodia	Evaluation Deputy director of department	한국 외교부 행사에 연구진이 방문 면담
주한 멕시코 대사관	교육-문화-인력 협력 담당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교수	본원 방문자
UNESCO Chairholder in TVET	교육과정 혁신 부문 교수	본원 방문자
Office of the Government Socialist	국제협력 국장-베트남	본원 방문자
Ministry of Human Resources, Malaysia	인적자원 개발 정책관 (Division Policy Principal Assistant Secretary)	한국 외교부 행사에 연구진이 방문 면담

주: 면담자 신상 정보의 비공개를 전제로 면담이 이루어졌으므로 기관명과 직위나 직책만을 기술하였음.

제2절 면담조사 결과 분석¹⁷⁾

면담조사 내용은 사전에 연구진이 전문가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각 피면담자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 실시하였다. 면담을 시행하면서 주요 이슈로 대두된 사안에 착안하여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7) 면담은 연구진들이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지만 면담 시, 익명을 요구하고 피면담자들의 의견이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 주요 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1. 사업 평가의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지원

<주한 대사관 참사관>

한국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는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많은 ODA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서둘러 사업의 성과를 내길 바라는 입장을 느꼈다.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후관리 또는 후속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ODA 사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ODA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직업교육훈련 ODA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경험과 노하우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가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었으나, 대부분의 사후평가 시스템이 미비하여 평가 절차가 불분명하고 자체 평가에 대한 실적도 저조하다.

또한 사업평가 담당 부서가 사업 실시 부서와 독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평가의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평가 담당자들이 2~3년마다 순환근무를 함에 따라 사업평가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축적되어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직업교육훈련 ODA 정책 추진

<개발도상국 ODA 전문가 및 유네스코 전문가>

한국은 직업교육훈련 협력 ODA 사업을 위하여 국립 수파노봉대학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6년에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설립 프로젝트 검수 및 감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립 루앙프라방대학 설립에 필요한 교육시스템 수립, 기자재 설치 및 시운전, 교직원 연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의 과정의 분야에 대한 검수와 학교 건축분야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한국 유학 연수 및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의 증가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부족이 절실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지원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특정 지역과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6년에 라오스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라오스의 직업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고 라오스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도상국과의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국가의 빈곤퇴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에 의한 국제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의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발도상국과의 공동 번영 등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협력(이하 ‘국제개발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매년도 및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 계획,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추진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대통령령 제19298호 신규 제정, 2006. 01. 26.).(국무조정실2016, 홈페이지)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각 시행기관 간의 사업에 대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개별 국제개발 협력 사업 시행기관이 설정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종합하는 성격이 강해서 원조 수원국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관기관인 외교부(무상원조 주관)와 기획재정부(유상원조 주관)로 이원화되어 있고, 시행기관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 등 30개 이상에 달하다 보니,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조 수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유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의 사업 영역을 둘러싼 갈등의 여지가 있고, 기획 및 집행 기관들의 사업과 예산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KOICA는 정부의 통합적 ODA 지원체계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유·무상 통합 수립 등에 적극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중장기 전략으로 ‘플랫폼 전략’을

채택하여 국내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략 과제를 도출하여 조직의 협업 기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응답자 국적에 따른 ODA 개선 필요 사항’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ODA 정책 추진’요구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직업교육훈련 ODA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 요구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국제 규범적 차원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일반적인 국제협력 사업과 달리, 유엔을 비롯한 OECD(DAC 포함) 및 국제기구 등의 논의와 합의를 기초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의 경우 각 부처나 ODA 추진기관들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높다. 직업교육훈련 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연수 및 학위과정을 확대와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분야는 수행 사업 부문별, 개발도상국 지역별 지원 등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자들

의 전문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담당자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활용하여야 한다.

4.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부처 간 연계 강화

<외국 대학 ODA 전문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중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일관성 향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제·사회·정치·환경 비용과 의도하지 않은 정책 결과에 대한 고려, ODA 이외의 다양한 개발재원의 인식, SDGs 달성을 위한 분야별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담당자들의 사업 추진 방향이 다른 점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 또한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통합이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연관성의 수준과 영향력에 대한 이해는 한국이 높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 SDGs는 국가 간 상호 연관성과 그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는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주: 지속가능개발목표(SDG)란 UN에서 2000년에 채택한 새천년개발계획(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이 2015년에 종료되면서 향후 새로운 15년 동안의 개발 난제들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고자 UN에서 채택한 개발목표를 말함(UN, 2016, 홈페이지).

베트남 원조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ODA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외교부 및 재외공관(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 협력국 재외공관에는 ODA 전문관의 파견과 함께 각 부처와 ODA 담당 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5. 수원국의 선정 및 수원국의 제시 목표

베트남과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거시목표가 불분명하다. 현재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공여국의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수원국 선정 시 수원국의 체계적인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수원국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수원국의 수용성 등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

<국책연구원 ODA 전문가>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은 무엇보다 효과성이 어디가 큰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 선정에는 과거의 사업 성과나 국가 간 정치적인 관계도 필요하겠지만, 현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의 적극성과 열의, 전문성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된다. 어떠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든지 현지화가 중요하며,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만이 기대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과 과거의 긴밀한 정치적 이슈

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용 태도와 직업교육훈련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도가 사업의 성패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개념은 불명확하다고 생각된다. 타 국가와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의 비교우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수원국을 이해시켜야 한다. 어느 대학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대학의 국제화 사업으로서 ODA를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 초청 방문자 ODA 분야 담당자>

개발도상국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국제개발협력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 수준에서 수원국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과 수원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지역 및 국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지원을 위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정규교육 시스템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지만,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대부분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밖에서 제공하는 단기적인 직업교육훈련으로 분리된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다양성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정치적·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에서는 국가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면담조사 결과,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직업교육훈련 개발 협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

개발협력에 있어서 해당 수원국의 수요를 분석하는 것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원칙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사례에 있어서 기존 통계와 수원국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에 의존하여 주로 공적개발원조 지원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원국의 요구를 반영한 효과성이 높은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성과 분석 및 면담 이외에도 경제·사회 동향 분석, 산업발전 동향 파악 등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때 편협적인 자료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수요에 대한 불균형적인 정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 지원 현황을 원조 재원별, 원조 유형별, 직업교육 분야별로 분석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 지원 현황을 원조 재원별, 원조 유형별, 직업

교육 분야별로 파악하고 직업교육훈련 공적원조개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적개발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들의 지원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상세하고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 공적원조개발이 지원될 때, 원조효과성의 원칙 중의 하나인 공여국 간의 원조 조화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여국 간의 원조 조화는 공적원조개발이 확대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각 공여국이 개별적인 원조를 지원하기보다는 공동 지원을 할 때 원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수원국에게 수요 지향적인 직업교육훈련 시행

개발도상국에는 수요 지향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강점을 이용하여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라오스는 그린에너지를 대표하는 수력에너지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4.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성공적인 ODA를 통한 직업교육훈련의 경제 발전에의 공헌 홍보, 지원 대상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고려한 홍보와 전파 등이다. 예를 들면 KOICA가 추진한 한-베 산업기술대학은 ODA 사업으로 설립되어 우리 기업의 인력 확보 및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는 상생의 ODA 사업으로, 이는 성공적인 추진 사업에 해당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제5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에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국가이다. 한국의 개발 경험은 주요 선진국들의 개발 경험과는 달리 현재 개발도상국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상황과 비슷한 여건에서 시작하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성장모델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여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자체적인 정책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성장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주요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원조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원국 중심의 개발 수요와 전략을 고려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충분히

전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수원국인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정책 수요와 개발전략에 맞는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경제 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발전목표가 수립됨에 따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국내 공적원조개발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였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재원확대 목표 및 유·무상 원조 비율, 양자·다자 원조 비율, 전반적인 재원 운용 계획, 주요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하는 추진 체제를 갖추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10).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4대 구상 등 SDGs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2020년까지 본격적인 이행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등이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¹⁸⁾이다.

18) ‘베어(BEAR) 프로젝트’는 한국 교육부가 2011년에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기술교육 발전을 위해 시작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임. 유네스코는 2011~2015년까지 5개년간 1단계 베어(BEAR) 프로젝트에 의해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나미비아, 잠비아, 팔라워 등 남아프리카 지역 5개국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직업교육 교사 훈련 등 교육혁신을 추진하였음. 여기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우리나라의 직업기술교육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하였음. 1단계 베어(BEAR) 프로젝트의 성과로는, 5개국 모두 한국 전문가와 8차례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수원국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 등 현지 실정에 맞춘 직업기술교육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 거점 국가는 UNESC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한국과의 직업기술교육·ICT 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및 협력 모델 적용 가능 국가를 선정하였음. 유네스코와 협의하여 베어(BEAR) 프로젝트 2단계 사업 대상국 중 추가 선정 예정임(교육부, 2016.1, pp. 22).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26일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사업의 일환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은 교육 및 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 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구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15개 중점 사업국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총 2억 달러의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OICA는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구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녀들의 교육, 보건, 직업훈련 역량 강화라는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으로는 라오스·미얀마 대상 소녀 친화적(지역사회 인프라·문화 확립 미래 역량) 기술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직업학교·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건립 지원 등이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2.29., pp.9~28).

이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4대 구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는 연도별 ODA 시행계획을 통해 정합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국제기구 기여금 지원 및 민간재원 연계를 통해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SDGs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 기구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

1997년~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분야 ODA 지원 사업으로 라오스의 ‘한·라오스의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비엔티안) 사업’(2007~2008), 방글라데시의 ‘다카시 미르푸르 직업훈련원 개·보수 및 역량 강화 사업’(2007~2009), 베트남의 ‘한·베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 강화 사업’(2007~2008), 미얀마의 ‘따가야 지역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2007~2009),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기술문화협력센터 건립 사업’(2006~2008), 캄보디아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축 지원 사업(프놈펜)’

(2007~2009), 스리랑카의 ‘자프나 기능대학 기능 개선 사업’(2004~2007)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17년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사업에서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리랑카의 ‘콜롬보 중앙직업훈련 및 감파하 고등기술센터 건립 사업’(2014~2019), 베트남의 ‘5개 지역 한배 직업기술대학 건립 사업’(2011~2017), 라오스와 스리랑카의 ‘개도국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위한 초청연수 사업’, 필리핀의 ‘UNESCO 타클로반 지역 학교 밖 소녀를 위한 교육 사업’(2017~2019), 네팔의 ‘UNESCO 포괄적 성교육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소녀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2017~2021)을 추진할 것이다.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증진을 위한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는 신탁기금 100만 달러로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을 위해서 2단계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직업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육성 및 교사 연수, 직업훈련원 설립을 통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개도국 산업 수요 급증에 부응한 전문 기능인력 양성, 직업훈련에 대한 기회 확대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6년 8월 3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2017년 국제개발협력 중합시행계획: 추가 사업 반영’ 계획에 따르면 ODA 사업 예산이 지역별로 아시아에 가장 많은 37.4%, 아프리카에 18.0%, 중동·독립연합국가(CIS)에 8.1%, 중남미에 5.9%, 기타에 30.1% 등이 배정되었다.

사업 분야별 지원은 보건 11.5%, 교통 10.9%, 농림수산 10.2%, 교육 9.4%, 수자원 9.4%, 공공행정 9.3%, 에너지 7.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ODA 사업 수나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직업 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문헌 분석, 실태조사,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정책토론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제언에 제시된 합리적인 의견에 연구자, 정책 결정자 및 집행자 등 ODA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 제언

1. 추진체계 및 평가 등의 제도적 측면

가. ODA 사업 담당 추진기관 일원화 및 지역별·국가별 전략적 추진 체계 확립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 부서의 전문역량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는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을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을 조직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단기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원국의 필요는 지역 및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공적개발 협력 전략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주관기간별 기본계획’이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시행기관이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은 각 기관의 전담 업무에 의거한 분야별 사업이 아니라 대상 지역 및 국가별 전략에 토대를 두고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유웅조, 2013).

나.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체계적·통합적인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매우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평가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시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평가 조직과 평가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회도 각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 및 기반 구축

가. 사업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실태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한 많은 제언으로 ODA 사업 확대,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개별 프로젝트 예산 확대, 현지 교육기관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참여 기관의 경험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수는 줄이고 사업 단위당 규모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19억 1,000만 달러로 28개국 중 14위에 올랐으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23위의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2010년을 전후로 ODA 정책을 선진화하고자 제도과 정책을 정비했으며, ODA의 양적 규모를 늘리고 질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목표를 0.25%로 설정한 것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한 수준이다.

나. 직업교육훈련원 건립 등 하드웨어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

우리나라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있어서 많은 컨설팅 경험이 있는 풍부한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 요청이 있다. 정부출연연구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전문 기능인력 양성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유상 사업의 부문별·기능별 분업과 협력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농촌 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직업교육훈련과 빈곤 감소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직업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전략 수립 및 시행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직업교육훈련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수요를 충족함에 있어서 수원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추기보다는 종합적인 수요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경험을 가진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를 지원함으로써 공적개발협력 성

과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에 원조의 책무성 제고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원조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야에 원조를 집중할 때 원조 성과관리도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여국들은 직업교육훈련 ODA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수원국에 접목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사전 타당성 검토의 내실화

공적원조개발 원조 수원국의 수요, 제도 현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전 타당성 조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수원국의 공적개발협력 분야의 제도 구축 관련인 경우, 국내 관련 부처와 다양한 분야의 공적개발협력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같이 MDGs를 달성한 중저소득국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 경험 공유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원국에 맞는 정책 경험 공유를 위해서는 장래 수원국의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사전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각 아시아 개발 도상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법·제도, 전달 체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등의 최근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수원국에 적절한 ODA 사업 기획 및 실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나. 수원국의 전문성을 활용

수원국의 직업훈련학교 중 거점 기관을 지정하고, 수원국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현지 자문 및 현지 교육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현지 교육 및 주변국 초청연수 등 삼각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국내 직업훈련 기관의 전문화와 전문 인력 육성을 추진

지역·분야별로 직업훈련 기관을 전문화하고 지역별 직업훈련 전문가를 양성하며, ODA 사업비 중 인건비의 비중·단가를 높이고, 전문가 파견을 포함하여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분야별 인력DB를 개발·관리하고, 해외 파견 직훈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국어 및 현지 사정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들의 개발협력 분야의 사업 수행 형태는 프로젝트 사업 중심에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부문별, 지역별 지원 등 전략형으로 개발협력 관련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국책 전문 연구기관, 한국 국제협력단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문가와 정부, 민간단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를 양성 하여야 한다.

라.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태조사와 면담조사에서 많은 요구를 한 제언은 실용적 분야의 교육에 집중, 교·강사의 우수성 확보, 프로그램에 적합한 훈련생 선발 및 한국 초빙 교육 기간 확대 등이다. 글로벌 연수 사업은 개도국의 정책 입안자,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을 국내에 초청해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한국을 방문한 연수생은 모두 6만 4,296명으로, 1991년의 362명에 비해 약 178배 수준이다. 인재가 국가 발전의 미래를 이미 경험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더욱 발전된 개발도상국들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시행기관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경우,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한 인력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담당 인력의 충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KOICA에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피드백을 활용한 사업 추진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피드백을 활용한 사업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가. 직업교육훈련의 지원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평가체계 강화, 전문 평가기관 활용

직업교육훈련 사업 ODA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지역 및 국가별·부문별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체계적인 평가가 어렵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도 각 주체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이나 기관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통합적인 감사체제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 NGO PWYF(Publish What You Fund)가 발표한 ‘2016년 원조 투명성 지수(ATI)’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가 46개 기관 중 41위에 머물렀다. 정부는 KOICA를 비롯하여 한국 원조 전반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면서, 국제사회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숙련 개발 측면에서 원조의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파리 선언’(2005), ‘아크라 행동 계획’(2008),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2011) 등을 통해, 효과성 제고가 원조의 핵심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및 EDCF, 그리고 외교부 및 KOICA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전략과 체계, 사업 내용을 평가 대상으로 직업

교육훈련 분야 ODA를 종합평가한 사례가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질적 담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적개발 사업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평가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할 경우 외부에 원조 사업 평가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기법의 고도화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 기관 및 인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방식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 방식은 최대한 억제하고, 객관적 통계 자료와 신뢰할 만한 분석 방법을 사용한 정량적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훈련 관련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있어서 평가 사업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진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실태조사와 면담조사에서 많은 조사 대상자들이 교육 수료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 지원 대상국의 산업 정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성과 및 제약에 대한 현지 파트너와의 공유, 장기적 관점에서 차후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확보 등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사례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개발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및 수원국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개발협력 사

업의 지속적인 정책 수행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수원국의 역량 강화와 ODA 사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민·관 협력 사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강화, 이미지 제고

가. 민·관 협력 사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강화

직업훈련을 이수한 근로자들의 고용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PPP(PPP: Private Public Portership)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70차 유엔총회에서 제시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BLG: Better Life for Girl)은 소녀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ADB, ILO, World Bank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건립한 직업훈련원을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또는 공동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적극적인 정책 컨설팅 활용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정책 경험을 토대로 정책 개발 컨설팅 형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전한 보기 드문 사례이므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직업교

육훈련 분야 지원은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복합적인 정책 경험을 개발도상국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정책 경험 역시 개발 컨설팅형 사업, 특히 정책 자문형 컨설팅 사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전파를 통한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 증진

KOICA ODA 사업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산업기술대학을 설립, 제과제빵학과를 개설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직업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KOICA는 실습 기자재를 지원하고 국내 기업(CJ푸드빌주식회사)은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여, 2014년 3월 동 학과 첫 졸업생 45명 중 10명이 현지 법인에, 나머지 학생들도 대부분 외국계 기업 등에 취업하였다.

또한 KOICA는 국내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드림봉사단(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일환임.)을 운영하였는데 국내 기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2014년에 드림봉사단 1기 29명 중 45%인 13명에게 제과제빵 기술을 연수하여 베트남 산업기술대학에 파견함으로써 보조 강사 등으로 활동하게 하고 현지 법인에 채용되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 사업모델은 인도네시아에 추가로 적용되고, 이후 개발도상국에 확산되어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ODA Supporting Policies of Effici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 Policies
for Asia Developing Countries**

Namchul Lee

Ji-Sun Chung

Hea Jun 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are the experience of ODA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development in South Korea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to share the best practices of Korea 's advanced policies and systems as a bridge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mote friendship and mutual development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South Korea. The methods for this study are analysis of literature and related data, an expert advisory meeting, conduction of internet survey,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t home and abroad, shared research results, and previously held policy debates for verifying the validity of policy proposals.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Korea's ODA support policy and

the analysis of the project status in 2016. It also includes analysis of ODA support in major asian developing countries in Korea(Laos, Myanmar, Bangladesh, Vietnam, Sri Lanka, Indonesia, Cambodia), actual situation and interview analysis of ODA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ield,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Korea's ODA policy and results, Korea's second ODA mid-term policy (2016-2020) focuses on diversifying its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and contributing to a comprehensive business model. In addition, South Korea is making efforts to create markets and generate profits in developing countries by turning innovative ideas and partnerships into business opportunities.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supports partnership with developing markets and creating business opportunities through partnerships with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and small capitalist.

In 2015, Korea provided US \$ 1.9 billion to ODA projects, which was 0.14 percent of the gross national income(GNI). It was an 8.3 percent increase from 2014. South Korea is the 24th largest donor in terms of ODA to GNI among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and is the 14th largest donor when viewed on a scale. South Korea has set its ODA ratio target to 0.25 percent of GNI by 2015, but failed to achieve this because of the global economic stagnation, South Korea's fiscal tightening policy, and changes in GNI output. However, by 2030, the new target of ODA to GNI ratio was set at 0.30 percent. In order to reach this target,

South Korea set up ODA growth plans at major stages.

The total amount of ODA in Korea in 2016 is 2,439 billion KRW, an increase of 61.2 billion KRW from the previous year. Of these, 1,947.9 billion KRW(893.7 billion KRW in grant aid and 1,542 billion KRW in free aid) was established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project. In the case of free cooperation, the focus is on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four development cooperation plans announced by President Park Geun-hye in 2015. On August 30, 2016, the 27th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nounced the amendment plan for the 2017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Major revisions include the increase in the budget for ODA from 2,728.6 billion KRW to 2,750.6 billion KRW, the number of projects from 1,295 to 1,307,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ratio from 82.7 to 17.3 to 82.8 to 17.2, The ratio of grant and free aid was changed from 40.7 to 59.3 to 40.3 to 59.7.

The year 2016 is the year to implement the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30 and the 'Basic Plan for the Seco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earnest. After the re-adjustment of the focus countries, the government drafted the second draft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partner countries. After the final policy consultation, the governments of the 24 countries were confirmed.

The purpose, method and main content of ODA survey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ield are as follows. This survey

was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Nepal, Laos, Mongolia, Myanmar, Bangladesh, Vietnam, Sri Lanka, Indonesia, Cambodia, Pakistan and the Philippin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ODA in the 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for those who have completed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85 specialists who visited the KOICA and visited Korea Research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4, 2016 to September 12, 2016 for 5 weeks. The main research questionnaires were divided into common questions,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efficiency, influence and future sustainabilit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in-depth demand survey of the recipient country. Second, post-management and monitoring of ODA projects are required. Thir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d promote mid and long term ODA plan. Fourth,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experts should be trained.

The objectives, methods and main contents of ODA survey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ield are as follows. The purpose of the interview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ODA projects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ield in South Korea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Also, it is aimed to draw in-depth

opin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on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DA project which was revealed in the survey results. The main interviewees were mainly the study countries, but they also included ODA experts from other countries.

The main implications of the interview finding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edium to long term support through post management of project evaluation is needed. Second, the ODA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pursued b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hird, there is a need for expertise in promoting the ODA project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ield. Fourth, the business linkage between the ministries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election of the source country and the target of the recipient country in advance.

The policy suggestion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the implementation system and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ODA project promoting agencies and establish a strategy-centered strategy for each region and country. Second, in order to expand the budget for the business support and build the found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ftware support such as expansion of the budget to expand the project and support, hardware support such as establishmen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institutional basis and capacity building. Third, in order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systematic implementation strategy for promo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the feasibility study, utilize expertise of the country's vocational training centers, and promote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in South Korea. Fourth, in order to carry out the project using the feedback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jec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transparency and evaluation system of selecting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 target, utilize the professional evaluation institution, and follow up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ject thoroughly. Fifth,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 enhance the image of South Korea through strengthening cooperative projects with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tively using policy consulting, and disseminating successful ODA programs.

참고문헌

- 강인수 외(2012).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13).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2013~2015.
- 고혜원 · 이지은(2014).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ODA사업 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2016.1). 2016년 유네스코 협력사업 국고지원 계획(안).
- _____ (2016). 연도별 ODA 실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 8.). 201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
- _____ (2016.2.).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 플랜(안).
- _____ (2015.11).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제22차 회의 자료.
- _____ (2015. 5.). 제26차 회의 자료.
- _____ (2015. 3.).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국가협력전략-인도네시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캄보디아 ODA 지원 종합평가(2011) 결과 보고서.
- 김철희 · 이영현 · 조경원(2012). 직업훈련분야 ODA 통합 추진전략 연구: 직업 훈련 ODA 콘텐츠 적용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15). 미얀마 국별 종합평가 결과.

- 대외경제연구원(2016.4.23.). *오늘의 세계경제, OECD DAC 각료급 회의(HLM)개최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Vol. 16. No. 1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국가협력전략-스리랑카.*
- 유용조(2013).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42호.*
- 이남철(2015). *공적개발원조(ODA)을 통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적 자원 개발 지원. The HRD Review, 18(4), pp. 80~95.*
- _____ (2016).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LG): 향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의 전략과 과제. 국제개발협력, 1, pp. 85~107.*
- _____ (2016).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LG): 향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의 전략과 과제. 국제개발협력, pp. 92~93.*
- 정지선 · 장지순 · 한정임(2007). *아 · 태지역 직업교육훈련기관 실태조사 사업 I: 라오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원권 · 최영렬 · 이요한(2008). *라오스 · 캄보디아 2007년 수요 발굴 후속조치 추진: 사업제안서 작성.*
- 조정윤 외(2012). *신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對중양아시아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Ⅲ).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재은(2015). *베트남 교육과 공적개발원조. 동남아시아연구 25권 4호 (2015), pp. 77~124.*
- 한국수출입은행(2012).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보고서.*
- _____ (2013). *캄보디아 직업훈련 건립 사업 영향력 평가보고서.*
- 홍은표 외(2014). *교육 부문 ODA 종합평가 연구. APEC 국제협력원 · 상명대학교.*

- ADB(2015). ADB Project Data.
- ADB(2016). ADB Annual Report.
- APEC국제교육협력원(2014). 교육분야 ODA 종합평가 연구.
- OECD(2015). OECD Statistics.
- OECD(2016 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_____ (2016b). TOSSD Compendium.
- _____ (2016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Business Opportunities.
- _____ (2016d). NET ODA.
- UNCTAD(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 World Bank(2013a). Core Sector Indicators and Definitions.
- _____ (2014b). Corporate Scorecards, p. 8.

<홈페이지>

- 국무조정실(2016).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
- 한국국제협력단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
- 한국국제협력단(2016). 201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 ADB Project Data(<http://www.adb.org/projects/terms-use>,
accessed(2015.7.6.).
- U.N(2016) www.sustainabledevelopment.un.org.
- World Bank Project & Operations
([http://www.worldbank.org/projects/search?lang=en&searchTerm
=&mjsectorcode_exact=EX](http://www.worldbank.org/projects/search?lang=en&searchTerm=&mjsectorcode_exact=EX)).

부 록

1. 실태조사지
2. 심층 면담지(국문)
3. 심층 면담지(영문)

〈부록 1〉 실태조사지

Survey Regarding the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ET) Sector of ODA Programs in Developing Asian Countries

Objective	This survey aims to identify and improve the current status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sector of the ODA programs in South Korea
Target	Public officials and VET specialist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including 11 Asia partnership countries)
Timeline	July 2016

※ Vietnam, Indonesia, Cambodia, Philippines, Bangladesh, Mongolia, Laos, Nepal, Sri Lanka, Pakistan, and Myanmar are the 11 developing countries that form the partnership in Asia, and were selected by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IDC) under the Prime Minister.

1. Have you ever involved in South Korea's VET sector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 ① Yes → What is the specific title of the ODA programs? ()
 ② No

2. How would you characterize your knowledge of the VET sector of Korea's ODA program?

- ① Very Poor ② Poor ③ Fair ④ Good ⑤ Very Good

* Note: There is secondary education that places vocational training at the bottom of the field of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ECD DAC classification.

3. How did you first hear about Korea's ODA program on VET?

()

4. Are you satisfied with the VET sector of Korea's ODA program as a whole?

① Strongly Dissatisfied ② Dissatisfied ③ Neutral ④ Satisfied

⑤ Strongly Satisfied

4-1. What is your reasoning?

()

5. In what areas do you think the goals of the VET sector of Korea's ODA program have been achieved? (You may choose more than one answer)

① VET system/policy advice

② Labor market analysis

③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VET institutions, facilities installation, etc.)

④ VET curriculum development

⑤ VET Instructor training

⑥ Training for people in charge of VET

⑦ VET evaluation

⑧ Qualification system

⑨ Other ()

6. From the list below, which areas do you think require the most ODA?

Category	Never Required	Rarely required	Somewhat required	required	very required
VET system/policy advice	①	②	③	④	⑤
Labor market analysis	①	②	③	④	⑤
VET system improvement	①	②	③	④	⑤
Instructor training	①	②	③	④	⑤
VET curriculum development	①	②	③	④	⑤
VET evaluation	①	②	③	④	⑤
Establishment of VET institutions	①	②	③	④	⑤
Equipment & facilities installation (and other infrastructural developments)	①	②	③	④	⑤
Qualifications system	①	②	③	④	⑤
Other ()	①	②	③	④	⑤

7. What do you think are the biggest problems that the Korea ODA program is facing in the VET sector? (Rank from 1-3)

1 st	
2 nd	
3 rd	

- ① Low levels of support (amount)
- ② Lack of consistency·continuity in support
- ③ Weak long-term support plans (support is generally sporadic)

- ④ Support that does not fit current circumstances due to a lack of analysis of target country
- ⑤ Lack of vigilance
- ⑥ Absence of business feasibility study and evaluation systems
- ⑦ Support is limited to hardware (physical means of cooperation), such as equipment & facilities
- ⑧ Lack of cooperation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nd participating institutions
- ⑨ Duplicate support from various organizations due to lack of prior coordination
- ⑩ Other ()

8. Do you think the Korea VET ODA program was properly conducted in the following areas?

Category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All of the Time
Budget Invested	①	②	③	④	⑤
Pre-feasibility Study	①	②	③	④	⑤
Length of project	①	②	③	④	⑤
Training on program-related employees	①	②	③	④	⑤
Speciality of employees	①	②	③	④	⑤
Monitoring	①	②	③	④	⑤
Report of results and follow-up	①	②	③	④	⑤

9. What possible adjustments are necessary to the Korea VET ODA program in order to promote those programs?

Category	Not Required	Nearly Not Important	Somewhat Important	Important	Very Important
Establish long-term plans	①	②	③	④	⑤
Enact legal system of target country	①	②	③	④	⑤
Expand scale of support	①	②	③	④	⑤
Choose project areas based on selection and concentration	①	②	③	④	⑤
Strengthen linkages with local industries	①	②	③	④	⑤
Analyze labor market and labor supply & demand	①	②	③	④	⑤
Conduct surveys on business plans	①	②	③	④	⑤
Construct standard business model for VET	①	②	③	④	⑤
Differentiation of business contents	①	②	③	④	⑤
Tailor support to match supply & demand	①	②	③	④	⑤
Strengthen permanent local participation of experts	①	②	③	④	⑤
Stable support through a surveillance system	①	②	③	④	⑤
Other ()	①	②	③	④	⑤

10. What suggestions would you give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promotion and execution of a sustainable, effective ODA program?

--

※ Respondent information will be used strictly for research purposes only. Please check all that apply or fill in the relevant information.

Institution	
Department	
Position	
Responsibilities	
Length of Service related to VET	()years ()months
Length of Service	()years ()months

Thank you.

〈부록 2〉 심층 면담지(국문)

아시아 개발도상국 ODA 정책 지원방안

- 아시아 중점 협력국 (11개국)
 -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라오스, 미얀마
 - 동아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 면담의 목적
 - 아시아 국가 대상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의 개선 방안 도출
 -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DA 사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도출하고자 함.

- 면담 일정: 2016년 8월 말 ~ 9월 초

- 면담 대상자

- 수원국 측 대상자
 - (1) 주한 대사관 담당자(영사, 교육관 등)

(2) 전문기관 및 전문가

- KDI 스쿨 아시아 국가 전문가 등
- 라오스 수파누봉 대학교 관계자
- 베트남 전문대학 관계자

○ 공여국 측 대상자

(1)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

- KOICA
- 한국수출입은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UNESCO 한국 위원회

(2) 국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

- 주 라오스 코이카 사무소
-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교육관
- GIZ 사업 담당자 등

□ 면담 영역

○ VET 분야 한국의 ODA 정책 사업의 특징

- 공공 부문의 ODA와 NGO 등 민간 부문의 ODA
- 수원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의 VET ODA 사업의 특성과 보완책

○ VET 분야 선진국의 ODA 사업 동향과 특성

- 정부의 예산 규모 현황과 향후 증감 추세

- ODA 사업 수행 기구와 조직 현황

- 수원국 측의 VET 중장기 계획과 한국의 ODA 사업과의 일치성
 - 양 정부의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

- ODA 사업에 대한 수원국 측의 요청 사항
 - ODA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요청 사항 분석

〈부록 3〉 심층 면담지(영문)

Interview Sheet(2016)

Outline of interview

The analysis of status and problems of Korea's VET sector

Target of Interviewees

- Partner nations in Asia(11): Vietnam, Indonesia, Cambodia, Philippines, Mongolia, Laos,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Bangladesh, Nepal, Sri Lanka, Pakistan.

Purpose of interview

- To bring out measures to promote the VET sector of Korea's ODA program
To draw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opinion about problems of ODA programs of VET sectors in Korea and improvement measures

Interview plan: Aug. 20, 2016 ~ Sep. 22, 2016

(interviewees)

○ Interviewees from recipient countries

○ Interviewees from donor countries)

(1) Domestic experts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s

Head of Southeast Asia Team, KOICA

Division for economic cooperatio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ad of Southeast Asia and Oceania Te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ead of Education Team,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 Foreign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experts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Vietnam

Project manager, GIZ

Contents of interview

The contents of interview are as in the <Table 1>.

<Table 1> Contents of Interview

○ How did you first hear about Korea's ODA program on VET?
()

- The characteristics of ODA program of Korea's VET sector
- ODA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cluding NGOs
 - Features and Measures to promote ODA program of the VET sector of Korea from the recipient experiences

Answer:

-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 of the ODA Program of VET sector of advanced countries
- The current status and variation trend of government budget
 - ODA executing organization and its structure.

Answer:

- Suitability of Korea's ODA program to recipient country's VET middle and long term plans
- Role sharing of both sides and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Answer:

- Demands, needs of recipient country The analysis of needs of recipient country, and current situations of ODA in recipient country

Answer:

○ Are you satisfied with the VET sector of Korea's ODA program as a whole?

- ① Strongly Dissatisfied ② Dissatisfied ③ Neutral
④ Satisfied ⑤ Strongly Satisfied

- What is your reasoning?

Answer:

○ What suggestions would you give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promotion and execution of a sustainable, effective ODA program?

Answer:

○ What suggestions would you give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promotion and execution of a sustainable, effective ODA program?

※ Respondent information will be used strictly for research purposes only.

Thank you.

□ 저자 약력

- 이남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정지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윤혜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정책 지원방안 연구

- 발행연월일 2016년 10월 28일 인쇄
2016년 10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이 용 순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339-2121-8 93340
- 인 쇄 처 (주)법신사 (02)720-9786